

5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598.26 (+239.31)		799.59 (+18.87)
	금리 (미국 9년)		환율 (한-달러)
	3.669 (-0.071)		1425.90 (-6.60)

中 전기차 공습 시작... 韓 지분·생산기지 확보

상반기 전기차 신규등록 114% ↑
BYD, 1만1667대 판매 770% 급증
中 1위 '체리자동차' 국내 진출 예고
지커, 누적예약 1500대 '홍행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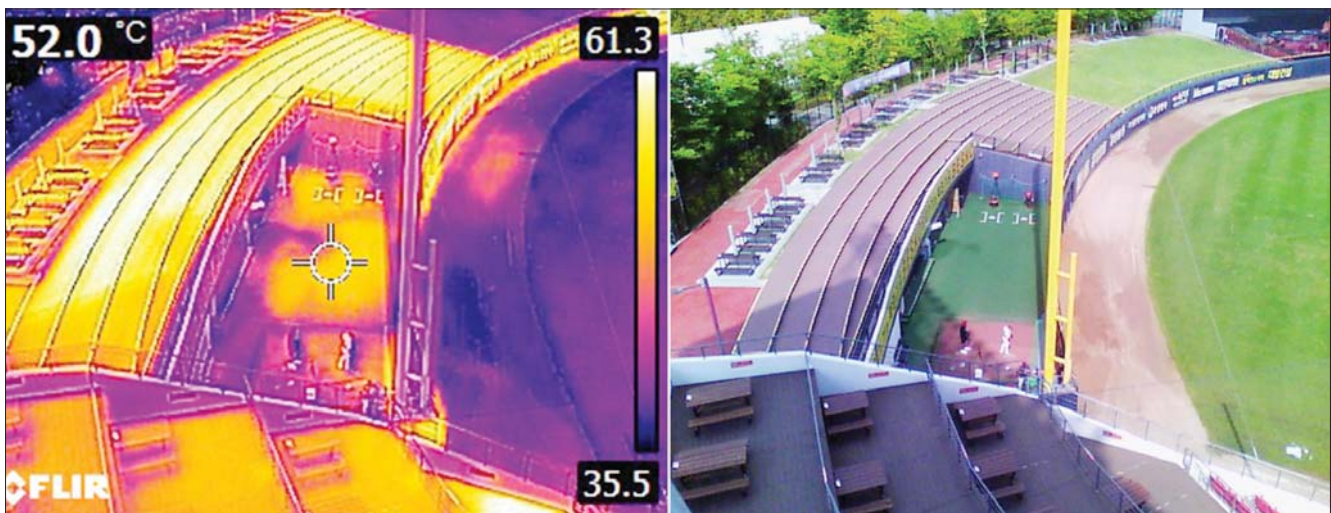
BMW를 비롯한 독일 완성차 업체가 독식했던 국내 수입차 시장을 중국 기업들이 전동화 모델을 앞세워 잠식해 나가고 있다.

BYD와 지커에 이어 중국 수출 1위 업체인 체리자동차까지 국내 진출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단순한 완성차 판매를 넘어 국내 업체와의 기술 협력, 지분 투자, 생산기지 확보까지 병행하는 전략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는 85만636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그 중 전기차 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반기 전기차 시장은 19만6509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3.6% 증가했다.

특히 미국 테슬라와 중국 BYD가 전기차 시장 상승세를 이끈 가운데 BYD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BYD는 공격적인 신차 출시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1만1667대를 판매하며 전년보다 772.7% 늘었다.

이처럼 국내 시장에서 중국 완성차 브랜드의 존재감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지



‘폭염중대경보’ 프로야구 연일 취소

전남광주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이어지면서 프로야구 경기가 연일 취소되고 있는 5일 오후 전남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 선수들의 피칭 연습장(왼쪽)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모습과 비교를 위한 원본 촬영 모습.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 낮을수록 푸른색으로 표시된다. /뉴시스

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3대 중 1대는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집계됐으며, BYD를 비롯한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국내 공략방식도 업체별로 차별화되고 있다. BYD에 이어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 지커는 판매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집중하는 반면 지리자동차와 체리자동차는 국내 완성차 업체와 협력을 기반으로 생산 및 공급망 구축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펼치고 있다.

현재 지커는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 인증 절차 문제로 출고 일정이 미뤄지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지커는 지난 6월 5일 중형

전기 SUV 7X의 사전예약을 시작했고 한 달 여만에 예약 대수 1000대를 돌파했다. 현재까지 누적 예약 대수는 1500대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리자동차는 르노코리아와 협력해 CMA 플랫폼을 공급하고 지분 투자에도 나섰으며, 부산공장을 활용해 계열사 차량을 생산·수출하는 등 한국을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체리자동차 역시 KG모빌리티(KGM)에 7500만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투자하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플랫폼을 공급하는 등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KGM과 공동 개발한 차량을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방안도 유

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체리자동차는 2003년부터 중국 자동차 기업 중 수출 1위 타이틀을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누적 수출 600만대를 넘기며 중국 자동차 기업 중 유일하게 내수보다 해외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의 국내 전략이 단순 완성차 판매에서 기술 협력과 생산기지 확보까지 다변화되고 있다”며 “한국 시장 공략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양성모 기자 ysm@metroseoul.co.kr

美증시 최고가 행진 코스피 3%대 급등

5일 코스피가 간밤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에 힘입어 4% 가까이 급등했다. 단 일종목 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 강화 호재가 더해진 코스닥은 나흘째 상승해 장중 800선으로 올라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9.31포인트(3.76%) 오른 6598.26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한때 6674.66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수가 급격히 뛰어오르면서 오전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수 사이드카는 지난달 31일 이후 3거래일 만에 발동이다.

이날 증시 상승은 간밤 뉴욕증시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1.71%),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1.79%) 등이 상승하며 종전 최고치 기록을 경신한 것이 재료로 작용했다.

코스피 239.31p 오른 6598.26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삼전 2%대, 하이닉스 5%대 상승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주요 관료들이 조만간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영향이다. 이에 9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증가는 배럴당 75.77달러로 전장 대비 5.7%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온기가 국내 시장으로 전해지자 외국인인 1조446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기관과 개인은 2835억원, 1조1835억원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50%, 5.77%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87포인트(2.42%) 오른 799.59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800선을 타치했다. 지난달 31일 정부의 단일종목 ETF 규제 강화 조치 시행 후 4거래일 동안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약 9000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신도시 속도전·신규택지·비아파트... 후속대책 나오나

李 대통령, 내일 부동산 2차 회의
릴레이 토론회 거쳐 추가대책 윤곽
이달 중 공급확대 후속대책 나올 듯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이 공개되면서 시장의 모든 관심은 공급 대책으로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를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이달 중 후속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갖고 관계부처에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점하라고 주문한 데 이은 후속 회의다.

이 대통령은 1차 회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며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의 방법을 찾아 공급의 신속한 실현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도심·비주택 용지·정비사업 활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급 패키지를 내놓았다. 올해 들어서는 후속 대책으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 6만 호, 용산·태릉CC·과천경마장 등 도심 공공부지 활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부동산 관련 릴레이 토론회 등을 거치며 추가 대책의 윤곽은 어느 정도 잡혔다. 진행 중인 신도시의 속도는 대폭 끌어올리고, 단기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도 늘린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신규 택지 개발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60개월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내 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당초 발표했던 입주 시점은 이미 지났고, 토지 보상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미운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안하가에서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주택공급은 계획보다 실행 단계에서 병목이 심각하고, 특히 착공 단계에서 막히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규 공급으로는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군부지 등 유휴부지 개발이 거론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도 일부 풀고, 지하철 인근이나 국가가 보유한 각종 군시설까지 포함해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보고와 후속 회의도 줄줄이 이어지면서 공급 대책은 빠르면 다음주께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이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찬 회동을 갖고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집값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주간 기준 지난해 2월 첫째주 이후 77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 집값은 올해 들어 지난해까지 6.29%나 뛰었고, 수도권 상승률도 4.02%에 달했다. 화성 동탄이 15.75%나 급등했고, 서울에서는 성북구가 10.3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이재명 “입시제도 손 대서 칭찬받은 예 없어…권장 안하는 입장”
▲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공정한 재정개혁 추진”
/사진 뉴시스

▲장동혁, 서범수 ‘돌려차기’ 발언에 “있을 수 없는 발언…깊이 사죄”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공정위 고발사건 수사 체계 변화

▲태풍 ‘돌핀’ 8~10일 제주 영향…해경·소방 대응 총력
▲대구·경북, 7월 ‘열대야 8.1일’ 역대 최다…평균 최저기온도 1위

서정진 회장, 글로벌 경영 ‘구슬땀’ 셀트리온 역대최대 실적 이어간다

서정진 회장, 여름휴가 전면 반납
유럽 등 해외 주요법인 현장 점검
글로벌 직접판매 체계 고도화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고성장 궤도에 오른 셀트리온그룹이 하반기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최고경영진 차원의 초강수를 둔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여름 휴가를 전면 반납하고 폭염을 뚫고 글로벌 영업 최전선으로 직접 뛰어든다.

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서정진 회장은 오는 10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해 8월 한 달간 유럽 전역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해외 법인을 순회하는 대대적인 글로벌 현장 점검에 나선다. 단순한 현지 법인 격려 차원을 넘어 하반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적 행보다.

서 회장은 권역별 시장 환경과 제품별 판매 현황, 입찰 및 공급 일정, 출시 국가 확대 계획 등을 직접 챙기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즉각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현장 경영의 핵심은 셀트리온이 추구하는 직접판매 체제를 기존 병원에서 약국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최근 인수한 프랑스 헬스케어 기업 ‘지프레’와 스위스 유동 제약사 ‘아이콘’을 해외 거점으로 삼아 현지 영업망을 공고히 한다. 인수 법인과와의 합병 시너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유럽 의약품 시장은 병원 입찰 채널과 일반 약국 채널로 크게 나뉜다. 셀트리온이 약국 직판망까지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경우, 현지 공급 경쟁력과 마진율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서 회장 특유의 ‘현장 밀착형 리더십’이 그룹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된 폭염으로 열악해진 현장 근무 환경 속에서 서 회장은 현지 영업 인력들과 고락을 함께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즉각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고경영진의 결단으로 바로 연결해 조직에 긴장감과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올해 하반기 유럽 주요 국가에서 실적 성장세 유지에 박차를 가한다. 유럽 주요국의 대규모 공공 입찰 물량이 본격 반영되는 데다, 연말을 앞두고 글로벌 의료기관들의 재고 확충 수요가 몰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실적 성과는 앞서 올해 상반기 이미 입증

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 2조5387억원, 영업이익 773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8%, 97.4% 급증한 역대 최대 반기 실적을 올렸다.

기존 제품군의 안정적인 판매 호조에 글로벌 직판 체계 고도화가 더해지면서 후속 파이프라인의 해당 시장 선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램시마SC(파하주사제형)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신규 제품군이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하며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램시마SC의 유럽 주요 5개 국가 시장 점유율은 올해 1분기 기준, 32% 수준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매분기 최고 점유율을 경신하고 있다. 유럽 전역에서 고른 처방 확대가 이뤄지면서 급격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자가면역질환 뿐 아니라 항암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올해 1분기 기준 유럽에서 트룩시마는 28~30% 수준의 안정적인 점유율로 유지했다. 같은 기간 허주마 역시 31%의 점유율로 시장에 진입해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서 회장이 휴가를 반납하고 해외 현장을 직접 누비며 하반기 매출 강화를 진두지휘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약국 직판망 확장 등 국가별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해 상반기의 가파른 성장세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시스

홈플러스, 2000억 확보… 13일 정식 영업

긴급 운영자금 대출 최종 허가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긴급 운영자금(DIP) 2000억원을 확보하면서 영업 정상화에 착수한다.

5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서울화생법원이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최종 허가해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자체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과 2000억원 규

모의 DIP 대출 약정을 체결한 뒤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제출 및 승인 기한을 다음 달 4일까지 연장했다.

홈플러스는 자금 집행 이후 납품업체와 배송업체 협의를 마무리한 뒤 임시 휴업 중인 67개 점포의营业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오는 7일부터 시범 운영과 시설 점검을 진행하고, 13일부터 정식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metro

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고시

올해 대비 3.7%↑… 모든 사업장 적용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700원이라며 고시했다. 이는 올해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 대비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시대 현실과 동떨어진 관행적 결정이라며,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 ‘취소 소청’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3면〉

2027년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 시 223만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업종별 차등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달 14일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들은 제14차 전원회의까지 가는 격론을 벌였고, 올해도 어김없이 합의안 도출이 아닌

막판 중재·표결을 통해 결론을 냈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열흘간 이의 제기를 받았다.

이 기간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의 도급노동자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과도한 수준의 인상 탓에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하고 도리어 일자리 위축을 앞당길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에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 안내와 사업장 지도, 감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쿠광, 과징금 직격탄… 2분기 8350억 영업손실

매출 88.5억달러… 전년대비 10%↑
물류센터 화재 손실 등 수익성 ‘적신호’

쿠광의 모회사 쿠광Inc가 올해 2분기 매출 13조원을 돌파하며 외형 성장을 이어나갔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6000억원대 과징금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의 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세무조사 추징금과 물류센터 화재 손실 등 추가 비용 부담도 이어지면서 하반기 실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5일(한국시간) 쿠광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광Inc의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88억5600만달러(약 13조3007억원)를 기록했다.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 고객 수는 2470만명으로 늘었고, 성장사업 부문 매출도 24% 증가했다.

반면 수익성은 악화됐다. 2분기 영업손실은 5억5600만달러(약 8350억원), 당기순손실은 5억7000만달러(약 856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적자 전환했다. 영업손실은 지난 1분기(3545억원)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발생했으며,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은 1조18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년간 기록한 누적 영업이익 1조2813

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적자의 주요 원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반영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전직 직원의 해킹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회원 332만 2472명, 비회원 433만 8368명) 및 무단 타사 활동 기록 수집 등에 대해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했다. 자회사 쿠광플랫폼서비스(CFS)에도 과징금 2억 4800만 원이 부과됐다. 과징금 중 약 4억 1000만 달러(약 6150억 원)가 2분기 판매관리비에 일시 반영됐다.

쿠광Inc 측은 과징금을 제외한 2분기 실질 영업손실은 1억 4600만 달러(약 2192억 원), 당기순손실은 1억 6000만 달러(약 2403억 원)라고 밝혔다.

컨퍼런스콜에서 김범석 쿠광Inc 의장은 “사고 기간 이탈해 아직 복구하지 않은 고객을 제외한 전체 고객 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해 사건 발생 전 수준에 근접했다”며 “비용을 삭감할 수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옳은 결정은 최우선 가치인 고객 경험을 뒷받침하도록 물류 처리 능력을 삭감 없이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담 아난드 CFO는 “4억 1000만 달러 과징금은 사법 판단을 거쳐야 하며 법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3분기 연결 매출 성장률은 고정환율 기준 8~9% 수준을 예상하며, 2027년 중반까지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 조정 에비타 마진 이 사고 이전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의 우려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 건에 따른 후폭풍이 법적·재정적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을 결정했으며, 전체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부담액이 조 단위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상가상으로 세무 및 기타 법적·물리적 악재가 3분기 이후 실적까지 위협하고 있다. 국세청은 쿠광의 한국 자회사간 이 전가격 거래 등을 조사한 후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해 약 3000억 원(2억 800만 달러)의 추가 세액 납부를 통지했다.

쿠광Inc는 이에 불복해 사법 소송을 포함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으나, 행정 절차상 선납 후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단기 자금 흐름에는 부담이다. 지난달 발생한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에 따른 자산 손실 추산액 2억 4600만 달러(약 3500억 원) 역시 3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쿠광이츠 최대우요구 혐의 및 끼워팔기 관련 과징금 부과 절차까지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수천억 원대의 추가 손실 리스크가 대기 중이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차세대 HBF 부상... SK하이닉스 '표준화' 삼성 '독자개발'

(고대역폭플래시)

AI 추론 확산에 메모리 선점전
SK하이닉스, 샌디스크와 표준 공개
구글·텐스토렌트 참여 생태계 확대
삼성전자, 특허 기반 독자 기술 개발
컨트롤러·패키징 역량 확보에 집중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이어 차세대 인공지능(AI) 메모리로 꼽히는 고대역폭 플래시(HBF)가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SK하이닉스가 HBF 첫 표준 규격을 공개하며 시장 선전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는 독자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포스트 HBM'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FMS 2026'에서 샌디스크와 공동 개발한 HBF 첫 표준 규격을 공개했다. 구글과 텐스토렌트 등이 참여한 개방형 컨소시엄을 기반으로 HBF 생태계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가 지난 4일 샌디스크와 함께 차세대 스토리지 기술인 HBF의 첫 표준 규격을 OCP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HBF 생태계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HBF 표준은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OCP)를 통해 공개돼 개방형 규격으로 활용되며, 현재 구글과 텐스토렌트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AI 스토리지 시장에서 HBF 채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도 HBF 관련 기술 확보를 이

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0년대 초부터 HBF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관련 특허를 잇달아 확보했다. 공개 컨소시엄 대신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메모리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HBF 구현을 위한 컨트롤러 기술과 패키징 구조 등 핵심 기술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17년 HBM과 낸드플래시를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하는 하이브리드 메모리 구조를 출원해 2022년 미국 특허로 등록했다. 고대역폭과 대용량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로, 업계에서는 HBF와 맞닿아 있는 기반 기술로 평가한다.

기술 개발과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충청권 첨단 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AI 시대의 미래 승패는 AI를 구동하는 소재와 부품에 달려 있다"고 밝히며 HBM 생산시설과 AI 서버용 패키지 기반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HBF 역시 이 같은 차세대 메모리 전략의 연장선에 있는 기술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HBF가 AI 서비스 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메모리 계층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HBM이 AI 학습과 고성능 연산에 강점을 가진다면 HBF는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AI가 학습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급격히 늘어나자 HBM만으로는 용량과 전력 효율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AI 에이전트와 개인화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도 늘어난다. HBF는 낸드플래시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HBM보다 대용량 구현이 가능해 HBM과 SSD 사이를 잇는 새로운 메모리 계층으로 평가받는다. AI 인프라의 메모리 병목을 해결할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HBF 상용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낸드플래시는 D램보다 적층 구조가 복잡해 생산 난도가 높고, AI 추론에 필요한 속도를 구현할 컨트롤러 기술도 확보해야 한다. SK하이닉스는 샌디스크와 협력을 통한 표준화에 나섰고, 삼성전자는 자체 기술 경쟁력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HBF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테크인사이츠는 HBF 시장이 2030년 120억달러 규모로 성장해 HBM 시장의 약 1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HBF는 낸드 적응과 컨트롤러, 패키징 기술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만큼 상용화 난도가 높은 제품"이라며 "표준 선점뿐 아니라 수율과 성능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 HBM 이후 승부수... 차세대 3D 메모리 첫 공개

美 캘리포니아서 열린 'FMS' 참가
AI 가속기 위에 zHBM 수직 적층
HBM5 대비 성능 최대 8배 향상
400단 이상 10세대 낸드도 선보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에서 HBM 이후를 겨냥한 새로운 3차원(3D) 메모리 아키텍처를 처음 공개했다. AI 데이터센터의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일 차세대 메모리 기술과 400단 이상 초고적층 낸드플래시를 선보이며 AI 시대 메모리 기술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FMS(Future of Memory and Storag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3D 메모리 아키텍처인 zHBM과 zNAND-O mock-up(Mock-up)을 업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약 20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해 AI 클라우드 서버를 형상화한 부스를 운영했다. 전시 공간은 ▲Highlight ▲Cloud AI ▲Edge AI 존으로 구성됐으며 D램과 낸드플래시, 스토리지 등 약 30개 제품을 전시해 AI 메모리 기술과 고



'FMS 2026'에 마련된 삼성전자 부스 전경.

각 맞춤형 솔루션을 소개했다.

행사 첫날에는 이진엽 플래시개발실 부사장과 김경문 D램개발실 상무가 기조연설을 통해 zHBM과 zNAND-O를 비롯한 차세대 3D 메모리 기술 비전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는 업계 최초로 400단 이상의 10세대 'V10 BV-NAND'도 함께 선보였다.

이번에 처음 공개한 zHBM은 기존처럼 AI 가속기 옆에 HBM을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AI 가속기 위에 HBM을 수직 적층

하는 차세대 메모리 아키텍처다. 메모리와 AI 가속기 간 데이터 이동 거리를 줄여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zHBM 기반 차세대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HBM5 대비 최대 8배 높은 성능을 제공하며 전성비는 최대 3배 향상된다. 열 저항도 절반 이상 낮춰 고용량 AI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고객 맞춤형 IP를 적용해 메모리 용량과 AI 가속기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삼성전자 zHBM mock-up.

/삼성전자

낸드 분야에서는 차세대 솔루션인 zNAND-O도 공개했다. zNAND-O는 V-NAND 적층 기술과 TSV를 결합한 3D 패키징 제품으로, 온디바이스 AI 환경에 맞춰 공간 효율과 데이터 로딩 대역폭, 응답 속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400단 이상 초고적층 구조의 'V10 BV-NAND'도 처음 공개했다. 웨이퍼 본딩과 3Stack 기술을 적용해 전세대 대비 메모리 집적도를 약 58% 높였으며, 읽기·쓰기 성능과 I/O 속도도 개선

해 차세대 고성능·고용량 낸드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HBM4E와 HBM5, LPDDR5X-PIM, 기업용 SSD인 PM1763-BM1773 등 AI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차세대 메모리·스토리지 제품도 전시했다. HBM5에는 신규 열관리 기술인 HPB를 적용해 더 높은 대역폭과 용량을 구현했다.

시장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차세대 메모리 경쟁도 기존 HBM을 넘어 새로운 아키텍처 개발 경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 모델 규모가 커질수록 메모리 대역폭과 전력 효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메모리와 AI 가속기를 더욱 밀접하게 결합하는 기술이 차세대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관계자는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AI 반도체를 구현할 수 있는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차세대 메모리 기술 혁신을 통해 AI 시대 반도체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metro

소공연, 최저임금 1만700원 취소 행정소송... 8년 만에 법정행

고용부 장관 상대 고시 취소 요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추진
주휴수당 폐지·업종별 적용 축소

소상공인업계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에 대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공연이 최저임금을 놓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8년 이후 8년만이다.

소공연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최저임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3번째) 등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공연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3.7% 인상에 대

해 이의제기를 했지만 고용부는 현장 절규를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이를 기각했다"며 "올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가 62만4000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고용부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또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과 획일적 인상을 강행한 위원회의 결정 구조는 현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최저임금위에 대해)해체 수순을 논의하고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 소상공

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공연측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로마의 황성현 변호사는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가 철저히 소외돼 있는 현행 구조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며 징역 및 벌금 등 형벌의 구성요건을 정하는 절차로서 최임위가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최임위 구성에 있어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소 대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려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소공연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할

계획이다.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강제와 행정부의 위원회가 투표로 정한 금액이 형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 고시 및 제도 개편을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하겠다. 현재에 헌법소원까지 불사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민생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목소리가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두에서 싸워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metro

SK이노, 정유 수익성 기반 미래 에너지사업 경쟁력 강화

2분기 매출 29.1조, 영업이익 3.4조
SK온·SK엔무브 실적 뒷받침

북미 생산거점 활용 ESS 수주 확대
호주 바로사 가스전 등 기반 확장

SK이노베이션이 에너지 사업 전반의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유 중심의 사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배터리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각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로 꼽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정유 사업에서 확보한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배터리와 LNG·전력,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미래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사업 전환을 뒷받침할 수익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 SK이노베이션은 올



SK이노베이션 E&S의 LNG수송선이 23일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LNG를 싣고 보령 LNG터미널에 처음 입항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

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9조1572억원, 영업이익 3조4873억원을 기록했다. SK온이 7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선 가운데 SK엔무브와 석유사업도 견조한 수익성을 보이며 실적을 뒷받침했다.

SK온은 판매량 확대와 미국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증가, 고객 보상금 반영에 힘입어 영업이익 8218억원을 거뒀다. SK엔무브도 중동 경쟁사의 공급차질로 고급 유틸리티 마진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 6919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2분기 실적에는 전사 기준 1조

1949억원의 재고 관련 이익을 비롯한 일회성 요인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하반기에는 이 같은 효과가 줄면서 영업이익 규모도 전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변동성과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제한적인 성장세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 수요처를 다변화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SK온은 북미 생산 거점을 활용해 전기차와 ESS 물량을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글로벌 ESS 수주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 올해 글로벌 ESS 수주 목표는 20기가와트시(GWh) 이상이다. 국내에서는 약 1.8GWh 규모의 장주기 ESS 물량을 확보했으며 북미 고객들과도 10GWh가 넘는 공급계약을 협의하고 있다.

LNG·전력 부문에서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의 상업 생산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

터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사 가스전은 올해 하반기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1050메가와트(MW) 규모의 용인 발전소는 2030년 2분기 이후 단계적으로 상업 운전해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LNG 생산부터 발전, ESS까지 사업 기반을 확장하고 AI·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분기에는 일회성 이익이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이후 이익 규모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국제 원유 공급이 빠르게 늘기 어려운 데다 블루오일 SK 합작법인 종료에 따른 비용 절감과 유틸리티 사업의 높은 수익성이 실적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망용 ESS 수주와 유럽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가 확대되면 SK온의 공장 가동률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광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Z 폴드8, 신기록에 실속까지… “출하량 24% 늘 때 매출 48% ‘쑈쑈’”

삼성전자, 고가제품으로 성장축 이동
국내 사전판매 144만대 최다 기록

폴더블폰 글로벌 점유율 32% 전망
흥행요인에 가격 경쟁력 등 꼽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팔린 대수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두 배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시리즈가 국내 사전 판매 신기록을 세운 가운데 시장 성장의 축이 물량 확대에서 고가 제품 비중 확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패널 출하량은 약 2750만대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매출은 약 44억 달러로 48% 늘어날 전망이다. 매출 증가율이 출하량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한다.

가격대별 구성이 이를 뒷받침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해 폴더블 3대 중 1대꼴이던 1600달러 이상 제품 비중이 올해 60%까지 확대되는 반면 1200달러 이하 제품은 절반 이상에서 30% 밑으로



지난 7월 23일 삼성전자 미디어 브리핑에서 공개된 ‘갤럭시 Z 폴드8’, 갤럭시 폴드8 울트라, ‘갤럭시 Z 폴드8’ 등 폴더블 신제품 3종. /구남영 기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평균판매가격(ASP)도 18%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제품 형태도 고가제품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책처럼 좌우로 펼쳐는 북타입 비중은 지난해 52%에서 올해 65%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대로 위아래로 접는 클램셀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보급형으로 밀려나고 있다.

완제품 시장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글로벌 폴더블 완제품 출하량이 전년 대비 21% 늘어나고 브랜드별 점유율은 삼성전자

32%, 애플 25%, 화웨이 24% 순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폴드8시리즈 성적은 이런 흐름을 국내에서 확인시킨 사례로 꼽힌다. 전일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폴드8 국 내 사전 판매가 144만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분당 약 140대가 팔린 셈으로 2019년 갤럭시 노트10이 세운 종전 최다 기록 138만대를 7년 만에 넘어섰다.

이날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가운데 4대 3화면비를 적용한 갤럭시 Z 폴드8의 판매



갤럭시 폴드8 이미지. /구남영 기자

비중은 70% 수준으로 신규 품팩터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다. 삼성닷컴 사전예약 고객 중 1030세대 비중이 절반에 달했으며 폴드8 울트라·폴드8을 구매한 1030 여성 고객 수는 전작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삼성전자는 흥행 요인으로 칩플레이션 여파 속에서도 ▲글로벌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 ▲더블 스토리지 할인 ▲강화된 갤럭시 AI 구독클럽 프로그램을 꼽았다. 사전 판매 기간 삼성닷컴에서 자급제 모델을 산 고객 2명 중 1명이 구독클럽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변수는 하반기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폴더블 패널 출하량은 재고 조정과 신제품 출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7% 줄어든 약 390만대에 그쳤고 연간 물량의 약 64%가 하반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1분기 패널 점유율은 BOE가 약 45%로 선두를 지킨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는 약 22%를 기록했다.

폴드8 시리즈는 지난 4일부터 순차 개통에 들어갔으며 오는 7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00여개국에 순차 출시된다. 애플도 하반기 첫 북타입 폴더블 출시가 예상돼 하반기 성적이 올해 폴더블 시장의 반등 폭을 가늠할 전망이다.

타론 파타카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리서치 디렉터는 “저가 및 중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메모리 부품을 중심으로 공급 타이밍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중 시장 전반의 수요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제조사들이 물량 확대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고부가가치 제품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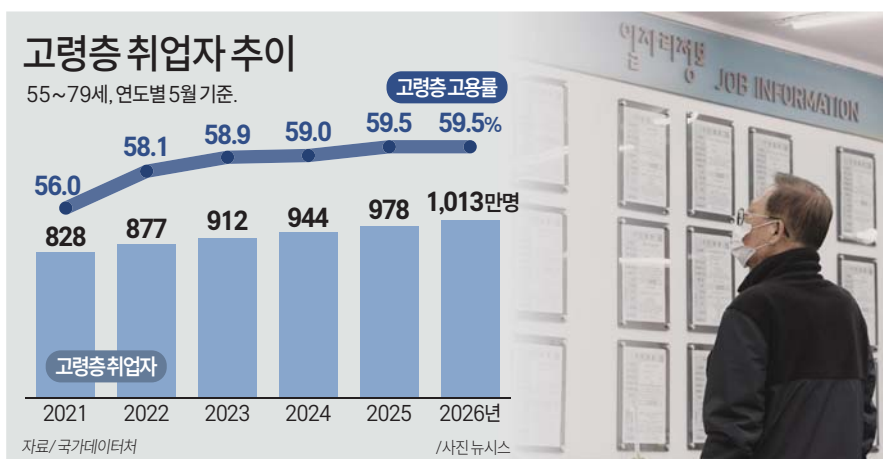
고령층 취업자 1000만 시대… 평균 53세에 최장근무 직장서 퇴직했다

데이터처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4년째 60%대
65~79세 취업자, 전년비 32.6만명 ↑

정부가 고령층으로 분류한 55~79세 인구의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1000만 명대에 들어섰다.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한 시점의 나이는 평균 53.0세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103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2000명 늘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1년 전과 동일했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한 뒤 4년 연속으로 60% 선을 넘겼다.

특히 고령층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34만5000명 증가한 1012만5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취업자 증가세는 65세 이상이 이끌었다. 65~79세 취업자는 전년보다 32만6000

명 증가한 411만8000명으로 전체 고령층 취업자 증가분의 94%를 차지했다. 반면 55~64세 취업자는 600만7000명으로 2만명 증가에 머물렀다.

이들의 산업별 비중은 보건·사회·복지 14.8%, 제조업 12.0%, 도소매업 10.0% 순으로 컸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2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서비스 종사자가 15.3%로 뒤를 이었다. 관리자와 판매 종사자 비중은 각각 2.1%, 8.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대별 고용률은 55~64세에서 0.4%p 오른 71.5%, 65~79세에서 0.6%p 오른 47.8%로 집계됐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의 퇴직 평균 연령은 53.0세였다. 남성은

55.3세, 여성은 51.1세였다. 퇴직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3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 31.4%, 40대 15.0% 순이었다.

고령층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30.5%로 1년 전보다 0.4%p 상승했다. 이들의 현재 평균 연령은 62.6세로 전년대와 같았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68.2세로 가장 높았고, 광·제조업이 61.2세로 가장 낮았다.

취업 경험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7년 7.1개월로 전년보다 0.5개월 증가했다. 남성은 21년 8.6개월, 여성은 13년 7.1개월이었다.

근속기간별 비중은 10~20년 미만인 2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년 이상 22.5%, 20~30년 미만 19.9%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요즘 환전?

KB스타뱅킹 공항에서 바로 터치 캐치

환전하는 순간부터 여행은 시작되니까
환전부터 간편하게 KB환전서비스

스타프렌즈 러기지택 증정 이벤트

기간 2026.7.20.(월) — 2026.8.31.(월) *경품 지급은 외화 현찰 수령일 기준
내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고객 대상 3,000명 선착순 경품 랜덤 제공

- 01 KB스타(인터넷)뱅킹에서 이벤트 대상 통화를
미화 100불 상당액 이상 전액 원화에서 외화로 환전
* 이벤트 대상 통화 : THB, VND, CNY, TWD, PHP
- 02 수령 방법 선택 시 "인천공항에서 받기" 선택
- 03 인천국제공항 지점 및 환전소에서 외화를 수령하며
"이벤트 알림톡" 제시

경품 스타프렌즈 여행용 러기지택 랜덤 증정(3,000개)
* 이벤트 기간 중 고객별 경품 1회 지급 (중복 불가) / 경품 소진 시 조기 종료



이벤트 참여하기

최대 90% 환율우대

24시간 환전 신청

인천국제공항 어디서나 수령
2개 영업점, 7개 환전소(면세구역 제외), 7개 ATM

※경품은 고객님께서 선택할 수 없으며 준비된 경품 중 하나가 랜덤으로 지급됩니다. ※완료된 환전 거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연세구역(출국심사 후, 입국심사 전) 및 환승 고객의 경우 비대면 채널에서 환전하신 외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환전을 신청한 본인 고객만 찾을 수 있습니다(대리인 수령 불가). ※환전 신청한 금액은 원화로 직접 되팔기 할 수 있으며, 거래 시점의 환율 파실 때 환율(환전 신청 시 적용한 환율 우대율 적용)이 적용됩니다. ※환전 후 미수령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외화는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지만 이자 지급의 대상은 아닙니다. ※미달러(USD)를 제외한 기타 통화를 외화 입출금 계좌에 입금 후 영업점에 방문하여 외화를 출금할 경우 외화현금보관수수료(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JPY, EUR 1.5%, 그 외 기타통화 3%) ※비대면 환전 신청은 24시간(토, 일, 공휴일 포함) 가능하나, 온라인 영업일자 전환시간(매일 00:00~00:05) 및 매월 셋째주 일요일(00:00~07:00)은 시스템 조정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광고물은 이벤트 관련 홍보물이며 서비스 이용 전자세한 사항에 대해 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융상품(서비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 원까지"(본 은행의 여타보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3526호(2026.07.29.), 유효기간 2026.07.29.~2026.08.31.까지

KB 국민은행

“외교 정쟁 안타까워… 요란한 주장보다 결과로 책임져야”

李 대통령, 업무보고

“대한민국의 제도약, 더 나은 삶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가장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재외동포청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을 억제하고, 나의 이상과 가치, 이념을 관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립, 대결하고 반드시 충돌을 야기하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할 때 내 이념과 가치 지향이 실현할 수 있을까. 잠깐은 될지 모르나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이게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반대쪽에 있을 때가 또 다르다”면서 “반대쪽에 있을 때는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장하는 게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

에서는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 다르다”며 “책임만큼 권한을 가진 입장은 또 다르다. 주장하는 것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대도약,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며 “통일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질서의 격변기”라며 “오늘 업무보고 첫 순서는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보훈부인데 역할이 더욱 막중해진 부처들이 바로 이 4개 부처라고 생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부처를 일일이 거론하며 당부사항을 전했다.

외교부를 향해서는 “정상회담이 워낙 많고, 해외 정상 방문도 많이 있다. 외교부가 요새 고생이 많다”며 격려했다.

이어 “외교 분야에서의 접촉이 임기 후 반부에 가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임기 초에 해야 그 일을 기반으로 기업이나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할 기회가 커지는 것 같다”며 “외교부에서 이해를 조금 해달라. 임기 초에는 견여주고, 임기 후반기에는 날날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라는 게 어찌 보면 형식적이기도 하고 실효성이 과연 있나 싶기도 한데 특정 국가와 정상회담을 진지하

게 정성을 다해서 하고 나면 많이 바뀌고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에는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 같을 것이다. (북측에서) 반응도 없고 가끔씩은 안 좋은 반응도 생기는 하지만, 어쨌든 옆에 있는 거 아니냐”며 “요즘 관계가 매우 나쁜 상태인데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겠다”고 독려했다.

국방부에는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며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며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군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작은 틈새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 여론이 아닐까 싶다”고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내일 징계논의 돌입… 조경태·진종오 반발

국민의힘, 7인체제 윤리위 회의
조경태 “윤리위, 공정성에 정면위반”
진종오 “위원장, 비밀유지의무 위반”
이달 중순께 당사자 불러 의견 청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이번 주 회의를 열고 현역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돌입하는 가운데, 징계 대상자들의 거센 반발과 윤리위 내부의 갈등으로 당 내홍은 한층 더 깊어질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새로 추가된 윤리위원 2인을 포함한 7인 체제의 윤리위원 간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징계 대상자들에게 발송할 서면질서의 작성 등 징계를 위한 준비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위는 작성된 질의서를 통해 소명 자료를 받은 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당사자들을 불러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다.

이에 징계 대상자로 꼽히는 조경태·진종오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진종오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제 징계 절차는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 위원 5명 중 단 3명만 참석한 회의에서 개시됐다. 그것도 위원장 뜻에 동조하는 이들만으로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이것이 과연 당헌·당규에 따른 공정한 심의라고 볼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더 참담한 것은 윤민우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독립성과 투명성을 요구해

온 동료 위원들을 표적으로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해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정작 위원장 본인이 징계 대상자 명단과 결정문, 보도자료 일체를 외부인과 사전에 공유하고 상의해 왔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다. 동료에게만 칼 겨누는 위원장이 무슨 자격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위원장 사퇴 촉구·한동훈 무소속 의원 제명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3조 1항은 윤리위원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윤리위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징계 대상과 기준을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같은 사안에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리위의 징계가 더 탄력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특히 진종오 의원의 경우 ‘돌려차기 사건’ 발언 논란에 휘말린 상황이다. 앞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서범수 의원은 전날(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진 의원은 “저는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논란을 빚었다. 서 의원과 진 의원 모두 논란이 일자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은 “오하려 이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희화화하는 발언을 한) 사건들 때문에 (윤리위에서의 징계 논의가) 더 가속도가 붙게 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을 이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께 국민의힘 전체가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발언을 한 서범수 의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수식어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피해자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도 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장 대표는 서범수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접수한 데 대해서는 “징계요청서가 접수되고 앓고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당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리위 내부의 갈등도 아직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라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해임 조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우호한 윤리위 부원장과 황경성 윤리위원은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윤리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지키고자 목소리를 낸 위원들을 겨냥한 명백한 겁박”이라며 반발하는 등 윤리위원들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송영길(왼쪽부터), 김민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친명 “권리 보장” vs 친청 “투표 쿠데타”

민주당 8·17 전당대회 투표 진행
친명 후보들 ‘추가 투표’ 주장에
친청 “사후 투표 난생처음” 반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당원대회(전당대회) 권역별 순회경선 및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이 ‘추가 투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이 반발하면서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전당대회 순회 경선에서 당원들의 투표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권역별 합동 연설에서 후보의 연설이 끝나기 전에 투표가 마감돼서 정견 발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김용·임미애 후보 등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번 전당대회 물인 ‘연설 전 투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투표 당원들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연설을 들은 이후에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이 골자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세를 하고 투표해야 하는데 투표가 끝난 뒤 뒷북 치고 유세를 한다”며 “미투표한 사람을 마지막에 모아 기회를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

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보완점을 검토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짚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 지지 성향의 친명계에서 ‘추가 투표’를 주장하는 이유는 투표를 때문으로 보인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온건 성향의 당원 참여가 많다는 게 김 후보 측 주장이다. 이에 당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것을 넘어 투표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청래 당대표 후보 및 친청계 후보들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가 끝났는데 또다시 사후 투표를 하자는 주장은 난생처음 듣는다”며 “이건 ‘투표 내란’, ‘투표 쿠데타’”라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강득구 최고위원의 ‘추가 투표’ 주장에 대해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경쟁이 압박해서 느닷없이 당헌당규를 위반한 선호투표를 관철하지 않나, 한 번의 유사 사례도 없는 사후 피선거권 예외 인정을 통해 특정인을 후보로 만들지 않나, 이제는 추가 투표 주장까지 공공연히, 조직적으로 터져 나온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표가 덜 나왔으니 많이 나올 때까지, 이길 때까지 투표 한번 해보자는 말인가”라며 “법도, 당헌당규도, 심지어 상식조차 내팽개친 것인가”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투표용지 특검 후보 김용관·차진아·최창호

국민의힘, 야당 몫 위원 3인 발표

국민의힘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야당 몫 위원 3인을 발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김용관 변호사, 차진아 교수, 최창호 변호사 이렇게 세 분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김용관 변호사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20년 이상 판사 생활을 했던 법조계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오신 헌법 분야의 전문가”라고 소개했으며 최창호 변호사에 대해선 “2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한 만큼 이번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이라며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주로 수행하셨다”고 설명했다.

/박경수 기자



하나의 별은
혼자 반짝이지만
별들이 모이면
방향이 된다

합은 길이 된다



AI 시대 전기화·에너지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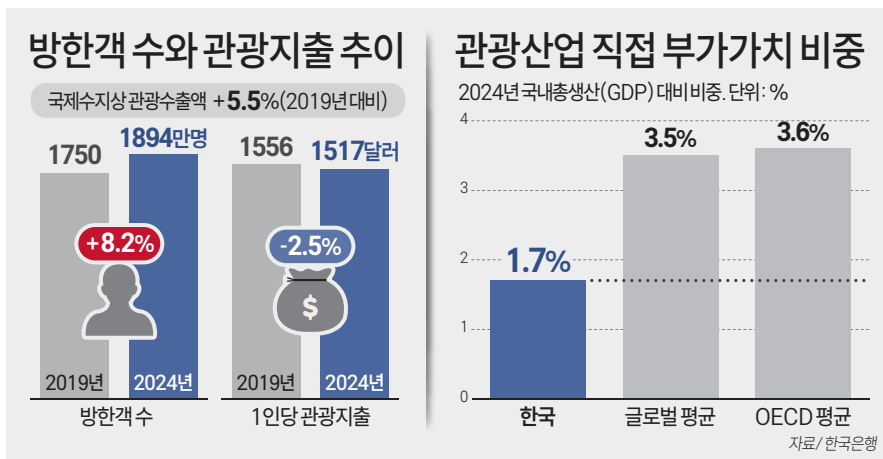
방한객 1900만명 시대… “체류·지출 늘려 관광산업 키워야”

한은, 서비스수출 관점 관광산업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역대최대’ 1인당 지출 2019년 대비 2.5% ↓
 日 수준으로 관광수출 높이면
 부가가치 추가 창출 6.3조 추정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1894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1인당 관광 지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관광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키우려면 방문객 숫자뿐 아니라 체류기간과 하루 지출액, 고부가가치 서비스 소비를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5일 한은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서비스수출 관점에서 본 관광산업의 성장효과와 정책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객은 1894만명으로 종전 최고였던 2019년의 175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같은 기간 1인당 관광지출은 2.5% 감소했고 국제수지상 관광수출액은 5.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관광객 수의 양적 회복이 지출과 체



류 확대를 통한 질적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관광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몫도 주요국보다 작았다. 2024년 한국 관광산업의 직접 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의 1.7%로 글로벌 평균 3.5%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을 밑돌았다.

관광수출은 경제성장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2001~2025년 GDP 성장기여도는 연평균 0.039%포인트(p)였고, 방한

수요가 회복된 2022~2025년에는 0.147%p로 높아졌다. 전체 효과의 약 60%는 숙박·음식·운송 등 관광산업에서 직접 발생하고 40%는 연관 산업으로 퍼졌다.

다만 최근 수치에는 팬데믹 이후 기저효과와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돼 구조적 경쟁력 개선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한국의 GDP 대비 관광수출 비율을 2025년 일본 수준인 1.46%까지 높이

는 시나리오도 분석했다. 한국은 1.17%에서 0.29%p 높아져야 한다. 관광수출액이 지난해보다 55억6000만달러, 25.4% 늘어나면 국내에서 추가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44억달러, 약 6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명목 GDP의 0.235%다. 일본 수치는 정책 목표나 전망이 아닌 효과 분석을 위한 예시적 기준이다.

한 가지 변수만으로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방한객을 481만명 늘려 2375만명으로 만들거나 하루 평균지출을 177.8달러에서 223달러로 높여야 한다. 평균 체류기간만 늘린다면 6.5일에서 8.2일로 1.7일 연장해야 한다.

여러 변수를 함께 개선하면 부담은 줄어든다. 체류기간을 6.5일로 유지해도 방한객을 226만명 늘린 2120만명으로 끌어올리고 하루 평균지출을 21.3달러 높인 199.1달러로 만들면 일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같은 관광수출액이라도 소비처에 따라 국내에 남는 부가가치는 달라졌다. 의료와 스포츠·오락, 개인서비스 등 고부가가

치 산업의 지출 비중을 17.2%에서 35%로 높이고 숙박·항공·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을 개선하면 추가 부가가치 유발액은 6조3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관광수출액이 별도로 1.7% 더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다.

한은 연구진은 의료·미용·웰니스와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MICE), 공연·전시, 프리미엄 음식·숙박 등 지출 단가가 높은 콘텐츠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에 집중된 관광 동선을 지역 연계·야간 관광과 장기체류 프로그램으로 넓히고, 정책 성과지표도 방한객수에서 관광수출액과 체류기간, 1인·1일 지출, 국내 부가가치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연구진은 “관광정책의 성과는 방한객수 확대 자체보다 관광수출의 물량과 단가를 함께 높이고 관광지출의 국내 부가가치 전환 정도를 제고하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ISA 개편, 연금저축 활용 최적조합 만들어야

내년 생산적금융·청년형 ISA 출시
 기존 ISA 혜택 축소, 해외투자 가능
 해외상품 단기투자, 기존 ISA가 유리
 국내 투자시 생산적·청년형 ISA 활용

주식·펀드 등 재테크에 활용 가능한 절세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선택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생산적금융ISA’ 및 ‘청년형ISA’의 출시를 준비한다. 두 상품이 출시된 이후에도 기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 ISA 계좌의 해지 없이도 생산적ISA 및 청년형ISA에 가입할 수 있다.

◆ 세제혜택은 확대… ‘해외투자’ 금지

증권사가 판매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주식, 펀드, 지수추종펀드(ETF) 등 투자상품을 한 곳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다. 가입 기간 내 순수익을 종합해 만기 시 과세해 운용에 유리하며, 이자·배당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최대 400만원(우대형 기준)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초과 이익에도 9.9%의 상대적으로 낮은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15세 이상 근로자·19세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출시되는 ‘생산적ISA’는 기존 ISA보다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만기 시 이자·배당 수익에 적용됐던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없앴고, 총 납입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까지 늘렸다. 기존 ISA과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 내 기존 ISA 계좌의 만기가 도래하면 연간 납입 한도와 관계없이 이월도 가능하다.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되는 ‘청년형ISA’는 생산적ISA보다 혜택을 강화했다. 생산적ISA에 제공되는 비과세 혜택에 더해, 납입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단, 생산적ISA와 청년형ISA는 모두 국내주식·펀드 등 국내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다. 기존 ISA에서 ETF 등을 통해 가능했던 해외 투자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품 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기존 ISA ‘혜택 축소’

생산적ISA와 청년형ISA 모두 기존 ISA와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지만, 기존 ISA 계좌를 운용했던 투자자들은 고심하고 있다. 생산적ISA와 청년형ISA의 출시에 맞춰 기존 ISA 계좌의 한도 이월을 금지해서다.

기존 ISA 계좌는 매년 2000만원씩 부여되는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납입 기간이 5년인 만큼,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면 최대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목돈 운용이 가능했다. 투자자들은 ISA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고 목돈이 모이면 단기간에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절세창구’로 활용했다. 한도 이월이 금지되면 투자 전략 변경도 불가피하다.

납입 종료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진 것 또한 투자자에 불리하다. 기존 ISA 계좌는 최소 3년, 최대 5년의 납입기간을 부여했는데, 납입기간 종료 이후에는 추가 납입은 불가하나 투자상품 운용은 가능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중·장기 수익을 목표로 배당 성향이 높은 중저위험 상품에 투자했는데,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지면 이같은 운용도 어려워진다.

재정경제부는 ISA 계좌의 개편 이유를 “국민의 중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기존 ISA 통장 대비 혜택이 큰 생산적ISA와 청년형ISA는 국내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한 만큼, 기존 ISA를 활용했던 투자자의 선택폭은 좁아졌다.

◆ ‘연금저축’ 등 대체상품

생산적ISA와 청년형ISA의 출시 및 기존 ISA의 혜택 축소로 투자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투자전략 변경도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투자성향에 따라 ‘연금저축’ 등 대체상품을 고려한 ‘최적의 조합’을 마련하라고 제안한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개별 주식 투자는 불가능하지만 펀드·ETF 등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의 납입액까지 세액을 공제하며, 기존 ISA처럼 해외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단, 최소 가입기간인 3년 유지 시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한 ISA와 달리 55세 이전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원금의 입·출금은 가능하다.

해외상품의 단기 투자 시에는 기존 ISA 계좌를, 해외상품의 중장기 투자 시에는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 상품 투자 시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생산적ISA 및 청년형IS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유동성이 충분하다면 절세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의 납입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하나금융, 포용금융 책임자에 이승열 선임

청년·소상공인 지원, 채무자 보호 강화
 올해 이행목표 3.1조, 상반기 60% 집행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 추진을 총괄할 최고책임자를 선임하고 청년·소상공인 지원과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하나금융은 이승열 지속성장·포용금융부문 부회장을 그룹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포용금융을 그룹 핵심 경영 과제로 추진하고 관계사별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하나금융은 ▲청년·소상공인 지원 ▲포용금융 내재화 ▲채무자 보호 및 금융범죄 예방 ▲사회연대금융 확산을 4대 중심 축으로 정했다. 올해 포용금융 이행 목표는 3조1000억원으로, 상반기에 이미 연간 목표의 60% 이상을 집행했다.

하나은행은 하반기 전세자금대출을 신

규 이용하는 청년 약 1만명에게 전세사기 보장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청년 자산형성과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 55억원을 특별 출연해 84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화 보증대출도 공급한다.

인천 소상공인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추가 배정하고 무담보·무보증 대출과 성실상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신과일러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중금리대출과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상반기 4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소멸시효 도래 채권 정리를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자체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카카오뱅크, 상반기 순익 3280억 ‘역대최대’

전년비 24%, 2분기 순익 12% 증가
 영업수익 5.5%, 비이자수익 4.8% ↑

카카오뱅크가 올 상반기 역대 최대인 328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여신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대출 비교·지급결제·투자 등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면서 이자와 비이자 부문이 고르게 성장한 결과다.

카카오뱅크는 5일 ‘2026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한 328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분기 순이익은 140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5% 늘었다.

상반기 영업수익은 1조64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대출을 통한 여신이자수익을 제외한 비이자수익은 5895억원으로 4.8% 늘었으며, 전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를 기록했다.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1696억원으

로 전년 동기보다 10.5% 증가했다.

대출 비교와 투자, 지급결제 등 플랫폼 사업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2분기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제휴 금융사에서 실행된 대출액은 1조5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머니마켓펀드(MMF)박스와 펀드 합산 판매 잔고는 2분기 말 1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체크카드 결제 규모는 6조3000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분기 말 여신 잔액은 48조217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180억원 증가했다. 가계 대출 증가폭은 2340억원에 그친 반면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3조687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840억원 늘었다. 상반기 전체 여신 순증액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이 차지한 비중은 48%에 달했다.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공급도 확대했다. 카카오뱅크는 2분기 중저신용 대출 5200억원을 신규 취급해 상반기에만 약 1조원을 공급했다.

/나유리 기자

현대차, ‘디 올뉴 아반떼’ 계약 개시 체격·성능 진화… 엔트리 세단 질주

2.0 가솔린·1.6 하이브리드 출시
P단 긴급제동 등 첨단기능 대거 적용
이전세대 대비 최소 336만원 인상

대한민국 국민 첫차의 대명사 아반떼가 6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왔다. 체격과 성능 모두 한 단계 진화되며 국민 첫 차에서 국민 세단으로 성장에 나선다.

현대차는 6년 만에 선보이는 8세대 모델 ‘디 올 뉴 아반떼’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계약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 시장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형 아반떼는 7세대보다 최소 336만원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

디 올 뉴 아반떼는 가솔린 2.0과 1.6 하이브리드 두 가지 파워트레이스로 출시된다. 가격은 가솔린 2.0 모델이 2398만원, 1.6 하이브리드 모델이 3042만원부터 시작한다. 가솔린 모델 2062만원, 하이브리드 모델 2555만원이던 7세대 모델보다 각각 336만원과 487만원 높아졌다. 가솔린 2.0의 복합 연비는 1당 14.3km다. 1.6 하이브리드 모델은 17인치 휠 기준 기존 대비 10% 개선을 목표로 개발됐으며 상세 연비는 정부기관 인



디 올 뉴 아반떼 외장.

/현대차

증 후 공개될 예정이다.

아반떼는 전장 4765mm, 전폭 1855mm, 휠베이스 2750mm로 한층 여유로운 공간감을 구현했다. 트렁크 역시 최대 479l로 동급 최고 수준의 적재용량을 갖췄다.

현대차는 아반떼에 최초로 전자식 변속 레버 P단 긴급제동 기능을 탑재했다. 운전자가 P단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가속을 제한하고 유압 제동을 작동시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감속과 정차를 돕는다. 아울러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중 특정 구간에서 자동으로 감속하는 ‘내비게이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2’도 처음 적용했다.

현대차는 3분기 중 가솔린 2.0 모델의 고객 인도를 먼저 시작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고시 완료 이후 세제 혜택 가격을 적용해 출고를 시작할 예정이다.

윤호준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은 “새로운 아반떼는 압도적인 존재감의 디자인과 차급을 뛰어넘는 공간성, 파워트레인 업그레이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플레오스 커넥트를 통해 엔트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르노코리아, 시승·할부 등 구매경험 재설계

‘차가움’ 서비스·반납 보장 등 운영

국내 자동차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있다. 과거 출력과 연비, 디자인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차량의 성능은 기본이고 경험, 구매, 이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제공하는 가치를 새로운 경쟁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5일 차봇모빌리티가 2026년 신차 구매 예정자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신차 구매 계획 및 자동차 소비 트렌드 분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 구매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가격’이 6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연비 및 유지비(53.8%) ▲성능(52.7%)이 뒤를 이었다. 가격·경제성·성능이 구매 결정의 핵심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완성차 업체는 차량 가격은 물론 초기 비용과 유지비, 잔존가치, 실제 주행 만족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소비자 입맛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차량을 처음 경험하는 순간부터 구매 이후까지 이어지는 ‘구매 경험’을 새롭게 설계하고 있다. 고객이 차량을 접하는 과정 하나하나에서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가장 먼저 경험을 바꾼 것은 시승이다. 르노코리아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차



르노코리아 필랑트 주행 모습.

량을 직접 가져가는 ‘차가움’ 서비스를 운영, 고객 편의성을 강화했다. 실제 생활권에서 출퇴근길이나 주말 외출 동선에 맞춰 차량을 체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했다.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의 부담도 줄였다. 그랑 콜레오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은 차량을 실제 생활 속에서 충분히 경험한 뒤에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반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짧은 시승으로는 알기 어려운 승차감과 정숙성, 연비, 공간 활용성을 일상 속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랑 콜레오스와 필랑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3ZERO 할부’는 구매 후 첫 3개월 동안 납입금이 발생하지 않아 차량 구매 직후의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 여기에 필랑트 구매 고객에게 제공되는 ‘5년 걱정-제로 바이백’은 5년 후 잔존가치 보장과 연장 보증, 정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차량을 보유하는 동안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양성운 기자

정기선 HD현대 회장, 지주사 지분 추가 확보

정몽준 이사장, 280만주 증여 예정
외부 매입 지속… 그룹 승계 가속화

정기선 HD현대 회장(사진)이 지주사 지분을 추가 확보하며 그룹 승계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외부 지분 매입과 장내 매수에 이어 부친의 지분 증여가 더해지면 지주사 지분율도 10%에 가까워지게 됐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다음달 3일 장남인 정 회장에게 HD현대 보통주 280만주를 증여할 예정이다. 전체 발행주식의 3.54%로, 4일 종가인 주당 20만8500원을 기준으로 약 5838억원 규모다.

증여가 완료되면 정 회장의 HD현대 지분율은 6.12%에서 9.67%로 높아져 정 이사장에 이은 2대 주주로 올라선다. 정 이사장의 지분율은 26.60%에서 23.05%로 낮아지지만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한



다. 두 사람의 합산 지분율은 증여 전후 32.72%로 같다.

정 회장의 지주사 지분 확보는 지난 2018년 시작됐다. 당시 정 회

장은 정 이사장에게서 증여받은 현금 3000억원 등을 활용해 KCC가 보유하던 현대로보틱스 지분 5.10%를 3540억원에 인수했다. 현대로보틱스는 현대중공업지주를 거쳐 현재의 HD현대로 사명을 변경한 그룹 지주사다. 이후 2024년에는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해 HD현대 주식 68만 2500주를 장내 매수에 지분율을 6.12%까지 높였다.

이번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약 3500억원으로 추산된다. 4일 종가를 단순 적용하면 할증평가 후 증여재산 가액은 약 7000억원이다. 여기에 최고세율과 공제 등을 반영하면 증여세가 3500억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 실제

세액은 증여일 전후의 주가 변동과 공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 이사장은 증여 이후에도 HD현대 주식 1821만 1330주(23.05%)를 보유한다. 4일 종가 기준 약 3조 8000억원 규모다.

재계에서는 남은 지분 규모와 세 부담을 고려할 때 지분 이전이 한 번에 이뤄지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증여 시기와 물량, 세금 재원 마련 방식이 승계 과정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승계 재원으로는 계열사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이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이 조선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고, HD현대일렉트릭과 HD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계열사의 수익성도 개선되면서 지주사의 배당 여력이 확대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LG전자 “청소로봇 ‘로니’ 체험해보세요”

주요 백화점 팝업 체험존 운영

LG전자가 신제품 청소로봇 ‘LG 홈봇 AI 오브제컬렉션 로니(이하 LG 로니)’의 디자인과 청소 성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를 마련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시작으로 주요 백화점에서 팝업 체험존을 운영하며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오는 12일까지 현대백화점

판교점 1층에서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주방과 거실 등 집 안의 다양한 공간을 서로 다른 인테리어로 연출해 LG 로니가 어느 공간에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객들은 주방 싱크대 하단 걸레받이 공간에 제품을 숨겨 설치하는 ‘히든스테이션’과 협탁형 디자인을 적용한 ‘오브제스테이션’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LG 로니의 차별화된 청소 성능도 체험

할 수 있다.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청소로봇 본체와 스테이션 모두에 100℃ 스팀 기능을 적용했다. 30W(와트)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바닥의 먼지와 이물질을 빨아들이고, 분당 180회 고속 회전하는 물걸레로 바닥에 늘어붙은 찌든 때까지 깨끗하게 닦아낸다.

LG전자는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시작으로 롯데백화점 인천점(8월 14일~23일)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8월 25일~31일) 등에서 LG 로니 체험 행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HMM, 아프리카 물류 네트워크 확대

신규 컨테이너 서비스 ‘GIA’ 운영

국내 대표 국적선사 HMM이 인도와 동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신규 컨테이너 서비스를 개설하며 아프리카 물류 네트워크 확대에 속도를 낸다. 원양항로와 지역 지선망을 연계하는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전략을 본격화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HMM은 오는 9월부터 인도와 동아프리카를 잇는 신규 컨테이너 서비스 ‘GIA(Gulf India Africa)’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GIA는 최원혁 HMM 사장 취임 이후 추진 중인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의 두 번째 아프리카 지선망으로, 인도 및 중앙아시아 화물이 집결하는 나바셰바와 문드리를 거점으로 탄자니아와 케냐 등 동

아프리카 주요 항만을 연결한다.

첫 항차는 9월 넷째 주 인도 나바셰바에서 출항하며, 28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이 투입된다. 기항지는 나바셰바(인도)-문드라(인도)-다르에스살람(탄자니아)-몸바사(케냐) 순이다. 중국 코스코 쉬핑, 싱가포르 PIL, 대만 인터아시아라인 등 4개 회사가 공동으로 운항하며 향후 중동 지역까지 기항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HMM 관계자는 “이번 인도-동아프리카 서비스는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을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S에코에너지, 상반기 사상최대 실적

매출 6358억, 영업이익 454억

LS에코에너지가 유럽향 초고압 케이블과 데이터센터용 버스덕트 수출 확대에 힘입어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고부가 전력 제품의 공급을 늘리는 한편 400킬로볼트(kV)급 초고압 케이블과 히토티 금속 사업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LS에코에너지는 올해 상반기 매출 6358억원과 영업이익 454억원을 기록했다. 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2.8%, 16.5% 증가한 수치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반기 기준 역대 최대다.

유럽을 중심으로 초고압 전력 케이블

수출이 늘어난 가운데 버스덕트 등 고부가 제품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설,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통신 인프라 수요 증가도 실적 개선을 뒷받침했다. 특히 상반기 버스덕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배 증가했다.

LS에코에너지는 고부가 전력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근 400kV급 초고압 케이블 사전적격심사(PQ) 테스트를 완료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유럽과 북미에서 수주를 확대할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wkh@

알뜰폰 가입자 4개월째 감소 ‘2.0 정책’ 반등 카드 통할까

1분기 순증 뒤 번호이동 흐름 급반전
KT 위약금 면제 특수 일회성 그쳐
QoS 도입·전파사용료 감면율 90%
도매대가 산정 통신 3사로 다변화
400Kbps 속도·채감 효과는 과제

알뜰폰이 번호이동 시장에서 4개월 연속 순감을 기록하며 성장세가 주춤한 가운데 정부가 이달부터 추진하는 ‘알뜰폰 2.0’ 정책이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 통계에 따르면 알뜰폰(MVN)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번호이동 시장에서 3만2077명 순감했다. 1분기에는 4만3706명 순증했지만, 4월 순감으로 전환한 뒤 4개월 연속 가입자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KT 위약금 면제로 인한 반짝 특수가 끝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KT는 지난 해 말 불법 펌토셀 해킹 사고의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된 면제 기한이 올해 1월에서 11월 말로 연장됐지만, 시행 초기에 가입자 이동이 대거 집중되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반사이익이 일회성에 그쳤다.

알뜰폰 업계는 이달 1일 시행된 정부의 ‘알뜰폰 2.0’ 정책에 따른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대표 지원책인 데이터 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1일 민생물가관계장관회의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알뜰폰 2.0’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심옵선(QoS)을 통해 이용자들의 데이터 사용 부담을 낮출 수 있어서다. QoS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전부 사용하더라도 추가요금 없이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알뜰폰에는 400Kbps 속도가 제공된다.

중소 알뜰폰 업체의 운영 부담 감소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정부에 매 분기 납부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이 50%에서 90%로 확대된다. 또 SK텔레콤이 대표 사업자로 결정해온 도매대가를 앞으로는 KT와 LG유플러스도 함께 산정한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는 망 대여료에 대한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게 된다.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알뜰폰 시장의 독립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 효과가 곧바로 가입자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데이터 안심옵선의 경우 앞서 통신 3사가 LTE·5G 통합 요금제를 출시할 때에도 400Kbps 속도로는 고용량 영상 콘텐츠 이용자 수요를 흡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통신사 간 가성비 요금제 출시 경쟁이 치열해 점유율 확대가 쉽지 않은 구조다.

하창직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사무국장은 “망 도매대가 산정의 경우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체감은 업체마다 사업 규모와 재무적 체력이 달라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카카오게임즈, 적자 축소 하반기 신작 승부

2분기 영업손실 230억 기록
‘도깨비의세계’ 등 순차 출시

카카오게임즈가 2분기 영업적자를 이어갔지만 손실 폭을 줄이며 체질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 회사는 하반기부터 대형 신작을 잇달아 출시해 실적 반등에 나서는 한편 비용 효율화와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한다. 최근 제기된 라인게임즈와의 합병설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 750억원, 영업손실 23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기존 게임 매출 감소와 신작 공백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줄었다. 다만 영업손실은 전 분기보다 약 10% 감소하며 수익성 개선 흐름을 보였다.

사업 부문별로는 PC 온라인 게임 매출이 2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며 실적을 지탱했다. 모바일 게임 매

출은 527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3분기부터 신작 중심의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 하반기 첫 주자는 슈퍼캣이 개발한 2.5D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도깨비의세계’다. 이달 사전예약을 시작해 10월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한국적 세계관과 레트로 감성 그래픽, 자유로운 스킬 선택 빌딩, 문과 중심 협력 콘텐츠를 앞세워 차별화를 노린다.

라이온하트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오딘Q: 발키리스콜’은 시장 환경과 완성도를 고려해 출시 시점을 2027년 1월로 조정했다. 언리얼 엔진5 기반 삼리스 오픈월드와 협동 중심 콘텐츠를 앞세워 글로벌 MMORPG 시장을 공략한다.

올해 4분기에는 엑스엘게임즈의 온라인 액션 RPG ‘아키에이지 크로니클’과 타이니핀게임즈의 전략 어드벤처 RPG ‘던전 어라이즈’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CNS, 전국 14개 공항 AI 전환 이끈다

AI 전략·데이터·거버넌스 등 설계

LG CNS가 공항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I)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LG CNS는 한국공항공사의 AI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KACAI 마스터플랜(ISMP)’ 수립 사업을 통해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선정한 AI 선도기관으로 2025년부터 총 50개의 AI 혁신 과제를 수행 중이다.

LG CNS는 본 사업을 통해 한국공항공사의 AI 전략을 구체화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AI를 활용해 ▲공항 운영 최적화 ▲고객 서비스 혁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핵심 서비스 발굴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AI 전략 컨설팅부터 AI·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AI 거버넌스 구축, 핵심 과제 기술검증(PoC), 후속 사업 실행계획 수립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다.



LG CNS 본사 전경.

/LG CNS

‘에이전틱 AI’ 기반 안전관리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공항 내 이상 상황 발생 시 현장 직원이 음성으로 상황을 남기면, AI 에이전트가 이를 자동으로 정리해 보고서 초안을 생성하고, 상황별 대응 절차를 안내한다.

이 같은 서비스 모델이 구체화되면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직원들의 보고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초동 대응을 지원하는 등 현장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민선 기자

LG유플러스, 알뜰폰 고객 혜택 ‘알닷컴클럽’

외식·문화·구독 등 생활 할인 제공
12개월 이상 이용자에 특별 응모
향후 유플러스망 이용자까지 확대

LG유플러스는 알뜰폰 고객 케어 프로그램 ‘알닷컴클럽’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알뜰폰 시장의 성장에 따라 고객들은 생활 혜택과 차별화된 이용 경험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알뜰폰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했다.

알닷컴클럽 혜택은 두 가지다. 알닷컴을 통해 개통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베이직 클럽’은 외식·문화·구독·생활 분야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일상 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브랜드 중심으로 구성했다. BHC 치킨, 이마트24, 롯데렌터카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구독 할인도 제공한다.

‘스페셜 클럽’은 선착순 응모 혜택을 더한 것으로 이용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이에 다이소 리들샷, PDRN 에센스 등 인기 제품을 선착순 응

모를 통해 제공한다. 이 밖에 구글 AI 구독, BHC 할인, CGV 콤보 할인권 등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새로운 혜택을 제공해 고객이 정기적으로 혜택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고객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혜택을 체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알닷컴클럽 혜택은 향후 유플러스망 알뜰폰 이용 고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알닷컴은 1000개 이상의 알뜰폰 요금제를 비교해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조민선 기자

SK텔레콤, 2분기 실적 반등… AI DC 성장 가속

매출 4조3591억·영업익 5660억
번호이동 가입자 15만6842명 순증

SK텔레콤이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란히 증가하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4월 해킹 사고 이후 고객 신뢰 회복에 주력한 결과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을 수치로 입증했다.

SK텔레콤은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4조3591억원, 영업이익 5660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각각 0.5%, 67.3% 증가한 수치다.

다만 회사 측은 “영업이익은 일시적 지출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분기에는 AI 데이터센터(AIDC) 사업이 가파르게 성장했다. AIDC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2.5% 증가한 1362억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은 지난달 AIDC 사업 개발을 전담하는 SK하이퍼를 설립했다. 부지, 전력 등 AIDC 구축에 핵심적인 요소

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고객을 유치하는 등 시장 주도권을 선점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 5GW 규모 AI DC를 단계적으로 가동하는 게 목표다.

통신사업 부문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번호이동을 통해 가입자 순증(15만6842명)을 기록했다. 5G·LTE 통합 요금제를 출시해 전반적인 요금 체계를 정비하고 고객 이용 경험, 서비스 접근성 등을 개선하며 고객 가치를 강화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크래프톤, 게임스컴서 차기 성장동력 공개

PUBG 기반 미공개 신작 등 5종 제품
액션 FPS부터 신규 IP까지 장르 확장

크래프톤이 세계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6’에서 차세대 신작 5종을 공개하며 글로벌 이용자 공략에 나선다. 배틀그라운드(PUBG) 지식재산권(IP) 확장부터 신규 IP까지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차기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게임스컴 2026에서 총 5종의 제품작을 공개한다. 제품작은 ▲펍지 스튜디오 미공개 신작 ▲NO LAW ▲프로젝트 제타 ▲에이지 트윙스터 ▲타래: 언바운드 등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작품은 펍지 스튜디오의 미공개 신작이다. PUBG IP를 기

반으로 개발 중인 액션 중심 1인칭 슈팅(FPS) 게임으로, 태평양 북서부의 숲과 소도시를 배경으로 매 플레이마다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NO LAW’는 사이버 누아르 분위기의 항구 도시 ‘포트 디자이너’를 무대로 한 이머시브 오픈월드 FPS 역할수행게임(RPG)이다. 이용자는 은퇴한 군인 ‘그레이 하커’가 돼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임무와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전투와 잠입, 탐험 요소를 결합한 자유도 높은 플레이를 제공한다.

‘프로젝트 제타’는 3인씩 구성된 4개 팀이 핵심 자원 ‘프리즘’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멀티팀 택티컬 아레나(MTA) 장르다. 전사와 암살자, 마법사, 원거리 공격수 등 다양한 역할군을 선택해 전략과 팀워크를 겨루는 방식이다.

/최빛나 기자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편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Salut 
Lucide
UV PROTECTION PATCH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UV-A 98% / UV-B 99% 차단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미래에셋 “채권 성과” vs 한투 “기업금융·메자닌 분산 투자”

‘연 4%+α 수익률’ IMA 비결

미래에셋 IMA 1호, 11.88% 수익률
누적손익 161억 중 채권 154억 차지

한투 IMA S1, 대출 비중 52.6%
IMA G1, 안정형보다 목표 수익 ↑

종합투자제좌(IMA) 시장을 선점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연 4% 안팎의 기준수익률을 제시하면서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쌓고 있다. 두 회사 모두 기업금융 자산을 활용하지만 자산 배분과 투자 집행 시점에 따라 초기 성과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기업대출과 회사채, 인수금융 등에 투자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때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만 운용 과정에서는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미래에셋 1호, 채권 운용으로 초기 수익 확보

5일 양사의 IMA 운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26일 설정된 미래에셋 IMA 1호는 지난 6월 말까지 11.88%의 누적수익률을 기록했다. 최근 3개월 수익률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은 11.48%로, 전체 수익의 상당 부분이 2 분기에 발생했다.

누적손익은 160억9100만원이었다. 채권에서 154억6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해 성과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출채권에서도 7억1300만원의 수익을 냈다.

미래에셋 1호는 LG에너지솔루션 회사채와 야놀자 사모사채, 인수금융 선순위 대출을 비롯해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비상장주식 등을 편입했다. 채권 비중은 3월 말 68.42%에서 6월 말 46.84%로 낮추고 대출채권은 5.89%에서

39.30%로 확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채권 가격이 오르면 일부를 매도해 수익을 확정하고, 대출자산은 만기까지 보유해 이자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인프라와 관련된 메자닌·비상장 투자도 선별적으로 확대한다.

같은 운용사의 상품이라도 설정 시점에 따라 성과는 달랐다. 지난 3월 30일 설정된 미래에셋 IMA 2호는 6월 말까지 6억 62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대출채권 등에서 수익을 냈지만 채권과 수익증권에서 손실이 발생한 영향이다.

실제 평가수익률은 -0.66%였지만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 구조에 따라 운용보고서상 기간수익률은 0%로 표시됐다. 1호는 약 6개월, 2호는 약 3개월로 운용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 한투 IMA, 기업금융 자산에 분산 투자

한국투자증권은 안정형 IMA 상품을 출시 순서에 따라 S1부터 S5까지 구분한다. S1은 지난해 말 출시한 첫 번째 안정형 상품이며 S2~S5는 이후 차례로 나온 후속 상품이다.

한국투자 IMA S1은 6월 말 기준 전체 자산 1조1452억3900만원 가운데 대출 비중이 52.6%, 수익증권이 41.6%를 차지했다. 주요 영업수익의 누계 항목을 합산한 순손익은 270억6700만원으로 계산됐다. 대출 이자수익 155억3300만원과 수익증권 배당·분배금 139억5900만원이 수익의 중심을 이뤘다. 평가손실과 운용·판매보수 등 비용은 차감됐다.

S2도 대출 41.3%, 수익증권 40.1%, 기업어음(CP) 12.5%로 구성됐다. 후속 상품인 S3과 S4는 수익증권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지난 5월 말부터 운용된 S5는 수익증권과 머니마켓펀드(MMF)·머니마켓트러스트(MMT)에 자금을 배분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한투 IMA는 기업대출이나 인수금융 같은 자산을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산은 자금을 모집하는 시점과 실제 투자가 들어가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차가 있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는 구조”라며 “운용을 길게 할수록 수익률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메자닌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기업금융과 메자닌에 분산 투자하는 첫 성장형 상품 ‘IMA G1’을 출시했다. 만기 3년6개월, 기준수익률 연 5%로 기존 안정형 상품보다 투자 기간과 목표수익률을 높였다.

현재 고객 기준 누적수익률이 공개된 상품 중 미래에셋 IMA 1호가 11.88%로 가장 높은 초기 성과를 냈다. 다만 상품별 운용 기간과 성과 산출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MA는 상품마다 자산 편입 시기와 수익 반영 속도가 다르다”며 “수익률뿐 아니라 실제 투자자산과 운용 기간, 만기까지의 회수 전략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월가 “SK하이닉스 ADR, 목표가 최고 330弗 전망”

AI 인프라 투자, HMB 주도권 고려
현재 저평가… 매수·비중확대 의견
내년에도 메모리 가격 급락 없을 듯

월가 금융회사들이 SK하이닉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에 대한 기업분석을 잇달아 시작하며 ‘매수’ 또는 ‘비중확대’ 의견을 내놨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주도권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가 기업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를 비롯한 미국 금융회사 최소 6곳이 4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 ADR에 대한 첫 보고서를 내고 긍정적인 투자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 바클레이스와 UBS 등이 먼저 분석을 시작한 데 이어 월가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노정 SK하이닉스 CEO, 고승범 SK하이닉스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뉴욕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열린 나스닥 ‘오프닝 벨’ 행사에서 타종하며 나스닥 ARD 거래 개시를 알리고 있다. /SK하이닉스

의 SK하이닉스 커버리지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BofA는 SK하이닉스에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250달러를 제시했다. 미국 대형 기술기업의 견조한 반도체 주문과 첨단 메

모리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 지속적인 AI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슈퍼사이클에 버금가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7~2028년에도 메모리 평균 판매가격(ASP)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을 것

으로 예상했다. 올해 3분기부터는 연환산 기준 300조원을 웃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2027~2028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이 약 4배에 그친다는 점도 저평가 근거로 제시했다.

니덤은 목표주가 200달러와 매수 의견을 내놨다. SK하이닉스가 여러 세대의 HBM 시장에서 선전 효과를 확보한 데다 AI 인프라 투자와 메모리 생산능력 제약에 따른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RBC캐피탈마켓도 목표주가 200달러와 시장수익률 상회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약 55%로 추정되는 HBM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이 심화하더라도 2027년까지 시장 선두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캐네피츠제럴드는 비중확대 의견과 함께 목표주가 300달러를 제시했다. 생성형·에이전틱·피지컬 AI 확산으로 메모리 수요가 최소 2029년까지 공급을 웃돌 수 있으며, 장기공급계약 확대가 실적 가시성과 현금흐름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로젠블랫증권은 목표주가 320달러를 제시했다. 바클레이스가 지난달 내놓은 330달러가 현재까지 월가에서 제시된 가장 높은 목표주가다. UBS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204달러를 제시했다.

디지털 금융정보 플랫폼마켓비트가 집계한 SK하이닉스 ADR 투자의견은 강력 매수 2곳, 매수 8곳, 보유 1곳이다. 평균 목표주가는 245.50달러로 나타났다.

한편 SK하이닉스 ADR은 4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전 거래일보다 8.17% 오른 154.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허정윤 기자

개별종목보다 美 레버리지 상품에 몰렸다

해외주식 Click

서학개미, SOXL 13.6억弗 순매수
국내주식 아닌 韓 증시 추종에 베팅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의 투자 열기가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FT)로 향하고 있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7월 28일~8월 3일) 서학개미 순매수 1위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스 볼 3X 셰어스 상장지수펀드(ETF)’(SOXL)였다. 순매수액은 13억6226만달러로, 2위에 오른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그 QQQ ETF’(TQQQ·1억7264만달러)와의 격차도 8배 가까이 벌어졌다. 반도체 지수 하나에

서학개미의 매수세가 집중된 셈이다.

이 기간 서학개미가 담은 상위 10개 종목 중 SOXL·TQQQ·QLD·KORU·TSL·SNXX 등 6개가 배율형 레버리지 ETF였다. 이들 순매수액만 18억2545만달러(약 2조6100억원)로 상위 10개 전체의 89.2%에 달했다. 순수 개별 주식은 알파벳·SK하이닉스ADR·아이온큐 3개뿐, 나머지 1개도 지수형 ETF였다. 종목을 고르기보다 방향성 레버리지 베팅에 쏠리는 서학개미의 성향이 이번 주 더 뚜렷해진 모습이다.

SOXL로 시작된 매수는 다른 레버리지 상품으로 번졌다. 나스닥100지수를 2배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 QQQ ETF’(QLD)가 9454만달러로 3위에 올랐

고, 테슬라를 2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TSLA 볼 2X 셰어스’(TSL)는 6383만달러로 6위를 기록했다.

서학개미의 베팅은 국경도 넘었다. 한국 증시를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MSCI 사우스코리아 볼 3X 셰어스’(KORU)가 8899만달러 순매수되며 4위에 올랐다. 코스피가 급락하는 와중에, 서학개미들은 국가가 아닌 미국 상장 레버리지 상품으로 베팅한 셈이다.

개별 종목으로는 알파벳이 7311만달러로 5위, SK하이닉스 미국예탁증서(ADR)가 5631만달러로 7위에 올랐다. 아이온큐는 4674만달러로 8위, ‘인베스코 나스닥 100 ETF’(QQQM)는 4606만달러로 9위를 기록했다. 다만 1위 SOXL과 비교하면 알파벳조차 19분의 1 수준에 그쳐, 서학개미들이 레버리지 상품을 압도적으로 선호했음을 보여준다. /김아영 수습기자 aykim@

ELS 낙인배리어 근접하면 투자자에 알림

금감원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
증권사 상품 사전 점검 책임 강화
CCO에 상품출시 보류 권한 부여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원금손실 구간인 낙인배리어에 가까워지면 투자자에게 사전 알림을 보내도록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게는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부터 판매 이후 관리까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10개 증권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는 증권사의 사전 점검 책임을 강화한다. 증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상품 설계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면 제도부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점검해야 한다.

기초자산 풀 관리와 기초자산 선정을 위한 운영 기준도 마련한다. 제도부서는 상품 특성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사전에 승인된 기초자산 풀 안에서 상품에 편입할 자산을 선정해야 한다.

상품승인위원회에는 소비자보호·준법감시·판매 부서가 필수적으로 참여한다. CCO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김영훈 “메가특구 노동규제 완화 미정… 사회적 논의 거칠 것”

〈고용노동부 장관〉

‘주 52시간 예외’ 속의 시간 강조
노동쟁의 해석 지침 조만간 발표
노동감독관 교육연수원 설립 방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규제 완화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노동계 등과의 사회적 논의 절차를 열어 두고 있다며 속의의 시간을 거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5일 세종에서 언론간담회를 가졌다. 메가특구법 관련 질의에 그는 “정책이 결정난 게 아니다. 확정된 건 아니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후 유관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을 선례로 제시했다. 그는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 안 들어가면 안고 빠진 쟁점이 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더라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너무 (조선시대의) 예송(예절 관련 쟁송)처럼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 당시 주 52시간 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 하고 있다. /뉴시스

외가 불포함된 게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대두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문제 발생 등은 미미했다는 게 김 장관의 평가다.

또 노사 입장 차는 아찔 수 없다며 사실 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양대 노총에서 이에 대한 대통령 면담 및 사회적 대화를 제안해 움에 따라 노

동계와 소통해 진행한다는 게 김 장관의 정책 방향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노동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노동 규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이 담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에는 노동자가 동의할 시 소득상위 3%인 관리자 및 연구개

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얹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당을 둔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젠션’(사무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 도입 방안으로 불린다.

양대 노총은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메가특구에 ‘안 좋은’ 일자리만 양산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처 간 엇박자도 보이는 상황이다. 산업통상부의 경우, 이견이 대체로 해소된 상황이라며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노동계 의견을 추가로 듣겠다는 의중을 이날 내비친 것.

아울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조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해석 지침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관련 쟁의 범위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에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는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서 냈었다”며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만으로 의무적 교섭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나 근로조건 변경 등이 수반되면 마땅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내리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연수원 설립 방침도 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인 노동감독관의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지면, 별도 교육기관을 통해 수사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의 언급에 따르면, 향후 노동감독관이 수사 개시와 종결을 판단하고 지청장이 검사 역할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수사 교육연수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기후부, 신설 송전철탑 40% 감축 추진

민가 밀집지역 지중화 확대
선로 경과지 보상·지원책 강화

정부가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가 밀집지역 지중화 확대를 통해 신설 송전철탑 40%를 감축한다. 또 입시선정 절차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선로 경과지 인근 보상과 지원책도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한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별 주민대표와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발표된 메가프로젝트 등 대규모 전력수요 산업의 지역분산을 통해 지산지소형 전력망 체계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에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를 보급해 낮시간 여유 발전력을 저장함으로써 외부 송전 필요성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제

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대규모 수요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이미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해서는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국가기간망의 기설선로와 병합 및 신설선로 간 통합 구축을 제도로해 신설 철탑 설치를 최소화한다. 기설선로 활용과 신설선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당초 2169km(철탑 4723기)에 달했던 총 연장은 최대 통합 시 1200km(철탑 2509기)로 약 40% 절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후보경과지 내 민가 밀집지역 위주로 지중화 구간을 점차 확대한다. 특정거리 내 일정규모 이상 주민 거주 시 지중화를 우선 추진하는 등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고시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입시선정 절차 초기부터 전체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확대하고, 입시선정위원회(입선위) 운영 시 주민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주민대표 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회의안전 방문설명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회의자료를 주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선로 경과지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책도 강화된다. 경과 지자체 지원금(20억 원/km)이 송전선 피해지역 위주로 지원되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금의 3분의 2 이상을 해당 읍면동에 우선 집행한다. 송전선 주변지역의 마을 공동 햇빛 소득 태양광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해 한전에 전담지원팀 신설도 검토한다.

특히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한전 송전망 사업 펀드에 투자할 경우 8~10% 수준의 고정금리를 투자 수익금 형태로 배분하는 ‘계통소득’ 구조를 2027년 상반기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전체 지원사업비에 물가상승률을 연동 반영해 매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수자원공사, 전사 가뭄대책 점검회의

댐 저수량 관리 등 가뭄극복 총력

늦은 장마와 마른장마, 장기화된 폭염이 겹치면서 주요 댐의 저수량이 급감하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사 비상대책본부를 강화하고 가뭄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일 대전 본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윤석대 사장을 비롯해 전 부문장, 유역본부장, 관련 부서장 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 가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폭염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한 가운데, 주요 댐의 용수 수급 관리에 비상이 걸림에 따라 마련됐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최근 가뭄과 폭염이 지속되면서 용수 수급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가운데)이 5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사 가뭄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 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양진흥공사, 중소선사 AI 경쟁력 높인다

해양산업 특화 LLM 개발 추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의 수준 진단 및 컨설팅, 현장실증 지원에 나섰다. 중소선사의 AI 전환 지원 확대를 위해, ‘선박 스마트화 진단’ 기법을 처음 도입하고 해양산업 특화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도 추진한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달 하순 열린 ‘2026년 제2차 해양산업 AI 전환 실무협의회’에서 확정됐다. 회의에는 SK해운, 현대LNG해운 등 중견선사를 비롯해 중소선사 16개사, 해양 AI 공급기업, LG AI연구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중소선사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해진공은 지난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실무협의체를 확대 개편해 중소선사 실무자의 참여를 늘리고, 최신 AI 기술과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회의에서 해진공은 해양산업 AI 전환 지원 사업과 올해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LG CNS는 AI 전환과 기술 실증·확산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선박 스마트화 진단 계획을 공개했다.

AI 공급기업들도 현장에서 활용 중인 기술과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씨네티지는 표준화된 해양 데이터를 활용한 선사의 AI 전환 기반 구축 방안을, 씨드로닉스는 AI 센서 융합 기반 자율운항(MAS S)과 스마트 운항 실증 사례를 소개했다. 마린웍스는 선박 관리 디지털전환(DX)·AI전환(AX) 서비스와 기술 동향을 발표했고, LG AI연구원은 산업 특화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AI 진단과 실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해양산업 전반의 AI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강화

송미령 장관, 공급품목 확대 방침 밝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관련해 정부의 품질·위생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5일 경기 광주 ‘유기농문화 체험센터’를 찾아, 임산부들과 이유식 만들기 체험을 함께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 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경기 광주 소재 유기농문화 체험센터를 찾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임산부에게 전달하고 있다. /농식품부

미를 배송해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확보도

파한다.

송 장관은 체험센터 전시관을 둘러본 뒤 무농약 단호박과 당근 등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아기 이유식용 과자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다.

이어 열린 차담회에서는 꾸러미 공급 품목 확대와 품질·위생 관리 강화 계획을 설명하고, 공급업체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친환경농업 생산자, 꾸러미 공급업체 등과 함께 친환경농산물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서울, 데이터센터 확 바꾼다… AI·재난 대응에 200억 투입

노후 정보자원 207식 교체·확충
생성형 AI용 GPU 연산 기반 마련
데이터센터 가상화·자원 공유 확대
서초·상암센터 상호 복구체계 강화
장애에도 행정서비스 24시간 유지

AI가 민원을 분석하고 도시를 예측하는 시대에 맞춰 서울시 데이터센터도 인공지능(AI) 전용 연산 기반과 클라우드, 재난복구 기능을 갖춘 디지털 인프라로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2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정보자원을 교체하고 AI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시설과 백업 체계를 강화해 민원·교통·상수도 등 주요 행정서비스를 24시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약 200억 원 규모의 '2026년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사업자를 선정



서울시청.

/메트로신문 DB

하고 데이터센터 고도화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 정보자원 207식(하드웨어 112식, 시스템소프트웨어 95식)을 구축해 AI·클

라우드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운영 기반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생성형 AI 등 고성능 연산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AI 전용 GPU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AI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냉각 등 데이터센터 기반시설도 함께 개선해 앞으로 확대될 AI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기반 운영체계도 확대한다. 현재 약 85% 수준인 데이터센터 가상화 환경을 바탕으로 서버 통합과 자원 공유를 강화해 정보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한다.

재난 발생에 대비한 복구 체계도 고도화한다. 서울시는 현재 서초센터와 상암센터를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두 센터 간 재난복구(DR) 체계를 강화한다.

핵심 시스템은 한쪽 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상호 재난복구 체계를 구축한다.

백업 전용 장비도 추가 도입한다. 온

라인 소산백업 환경을 확대해 대용량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백업하고 복구 시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백업 주기를 줄이고 장애나 재난 발생 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AI 행정과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행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이터센터 기반을 구축하고, 재난 대응체계와 서비스 연속성을 강화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준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데이터센터는 서울시 디지털 행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재난과 장애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행정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성적 오른 재수생 84% “인간관계 제한”

진학사, 성적 향상 재수생 842명 조사
인간관계 제한 응답 83.7% 기록
SNS·유튜브 사용 제한도 74.9%
집중 방해 요인 줄여 학습 환경 조성

수능 성적을 끌어올린 재수생 상당수는 공부시간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미디어 사용을 줄여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는 2026학년도 수능에서 성적이 오른 재수생 8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7%가 재수 기간 인간관계를 제한했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는 2026학년도 정시 마무리 시점인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됐다.

응답자의 58.3%는 '필요한 연락만 유지했다'고 답했고, 25.4%는 '거의 차단했



학원가 건물에 학원 간판이 즐비하게 설치돼 있다.

/뉴스1

다'고 밝혔다. 두 응답을 합하면 705명으로 전체의 83.7%다. '현역 때와 비슷하게 유지했다'는 응답은 7.4%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미디어 사용을 줄였다는 응답도 많았다. '최소한으로 사용했다'는 응답은 62.4%, '완전히 차단했다'는 응답은 12.6%로, 전체의 74.9%인 631명이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역 때와 비슷하게 사용했다'는 응답은 20.9%였다.

진학사는 성적 향상에는 학습 계획뿐 아니라 일상에서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점검하고 조절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연철 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인간관계나 미디어를 무조건 차단하기보다 자신의 학습 리듬을 흐드는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며 "수능일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공부와 휴식, 미디어 사용을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 초·중·고졸 검정고시 5908명 응시

서울 시내 12개 고사장에서 시험 실시

2026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 총 5908명이 지원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1일 서울 시내 12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교육청은 재소자와 중증장애인 응시생을 위한 별도 고사장과 방문 시험서비스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11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자는 초졸 388명, 중졸 994명, 고졸 4226명 등 모두 5908명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 지원자 40명과 재소자 45명이 포함됐다.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검정고시 전체 합격률은 2023년 88.7%, 2024년 87.9%, 2025년 88.0%로 88% 안팎을 유지했다. 올해 1회 검정고시에는 4954명이 지원해 4368명이 응시했고, 3994명이 합격해 합격률 91.4%를 기록했다. 학력별 합격률은 초졸 91.9%, 중졸 93.6%, 고졸 90.8%였다.

/이현진 기자

고사장은 모두 12곳이다. 초졸은 선린중, 중졸은 고척중과 송곡중, 고졸은 서울여중·무학중·신현중·명일중·개원중·목운중 등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재소자를 위해 남부교도소에 별도 고사장을 마련했다.

고사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지원자 2명에게는 자택으로 시험감독관이 찾아가는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초졸 지원자는 검정색 볼펜, 중졸·고졸 지원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준비해 오전 8시 4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원서접수 때 제출한 동일 사진 1장을 지참하면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소지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경기도-경기관광공사 ‘아시아 최고 문화관광지’ 트래지 어워드로 선정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북미 프리미엄 여행 전문 매체가 선정하는 'Trazee Travel Award 2026'에서 '아시아 최고 문화관광지(Best Cultural Tourism Destination, Asia)'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문화관광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국내에서는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 12회를 맞은 'Trazee Travel Award'는 3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더페닌슐라 시카고 호텔에서 개최됐다. 앞서 지난 7월 29일 트래지 트래블 관계자가 경기관광공사를 방문해 상패를 전달했다.

트래지 트래블은 25~40세 프리미엄 여행객을 주요 독자층으로 보유한 매체로, 평균 가구소득 21만 달러 수준의 고소득·고학력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다. 웹사이트는 월간 페이지뷰 190만 회 이상, 순방문자 78만 명 이상, 뉴스레터 구독자 10만 명 규모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교육부, 거점국립대 AI 경쟁력 강화

3개 대학에 첨단 분야 패키지 지원

교육부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지방 국립대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도 신설해 지역 인재 유치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3개 거점국립대에 성장엔진과 AI 분야 패키지를 지원하고, 전체 거점국립대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지역협약정원과 인재양성 신속트랙을 신설할 것"이라며 "지방 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인재장학금을 통해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부모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체부,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호도가 높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학고, 자력특화 특성화고를 확대하고 돌봄·문화·체육 기능을 결합한 학교복합시설도 늘린다. AI 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최 장관은 "모든 영재학교와 과학고에 대학·기업 연계 'AI 심화연구반'을 신설하고, 전국 400개 AI 중점학교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대학 중심 연구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연구지원 대상을 학사부터 석·박사, 박사후과정까지 확대한다. 모든 대학생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공동구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당진 드론공원, 국토부 지정 공원에 선정

석문산단 일원 1만4301㎡ 규모 조성

충남도는 당진 드론공원이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공원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공원은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한 취미·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정하는 공간이다. 국토부는 운영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이용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정한다.

당진 드론공원은 충남도가 2024년 시군 공모를 통해 추진한 충남 제1호 드론공원으로,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일원 1만4301.5㎡ 부지에 조성됐다.

공원에는 멀티콥터 이착륙장과 드론스포츠키장, 고정익 드론 활주로, 관리동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춰 드론 비행은 물론 교육, 체험,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됐다.

충남도는 이번 국토부 지정을 계기로 드론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동호인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국 규모 드론 경연대회를 유치하는 한편,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권역별 드론공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임택빈 충남도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지정은 충남도의 드론 기반 조성과 드론문화 확산 정책이 결실을 맺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드론을 안전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고, 미래 인재 양성과 드론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충남)=양대승 기자 zzica@



2026년, 하나증권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발행합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모두 성장 프로젝트

함께 만드는 내일의 가치

“
하나증권 발행어음이
모험자본 투자로
손님과 혁신기업의
내일을 키웁니다
”



하나 하나증권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사(AA, 2025.08.13, 한국신용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 0, -순으로 구분) ※발행어음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0024호(2026.01.06~2026.12.31)CC브랜드 260106-0096

9월 1회 주사로 약물중독 치료한다 인벤티지랩, 정부 글로벌 팁스 선정

IVL3004, 글로벌 후기임상 진입
독자 플랫폼 적용, 우수성 확인
향후 파트너십·기술이전 추진

약물 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바탕으로 초기 기술개발부터 글로벌 임상 및 사업화 단계까지 K바이오 전 주기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인벤티지랩은 자사의 미세유체 기반 장기지속형 약물중독 치료제 'IVL3004 (날트렉손)' 개발 과제가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정책지정형 글로벌 TIPS(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개발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정책지정형 글로벌 팁스는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헬스 기업을 추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투자와 글로벌 사업화 역량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운데, 2026년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단 1개 과제가 선정됐다. 선정 기업은 최대 4년간 6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받아 글로벌 후기 임상과 사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과제 선정으로 'IVL3004' 개발은 글로벌 후기 임상 단계에 진입한다. 인벤티지랩은 2020년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R&D를 통해 IVL3004 제형 및 제조 공정을 확립하고 글로벌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등 성과를 축적해 왔다.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바탕으로 초기 기술 개발부터 글로벌 임상, 사업화 단계까지 연구개발을 확장한 대표 사례다.

IVL3004는 월 1회 장기지속형 약물중독 치료제다. 인벤티지랩의 독자 미세유체 기반 IVL-DrugFluidic 플랫폼을 적용했고 글로벌 임상 1상에서 우수한 약동학적 특성과 내약성을 입증했다. 기존 상용화 제품 대비 약 20% 적은 약물 용량으로도 4주간 유효 치료 혈중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주사부위 반응(ISR)의 지속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확인했다.

인벤티지랩은 향후 미국 식품의약국(FDA) 규제 협의를 거쳐 글로벌 임상 2상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충족하는 제조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링 및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내 허가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

화 기반을 동시에 다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인벤티지랩은 미세유체 플랫폼 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급성장하는 글로벌 보건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개선해 환자의 복약준응도와 치료 지속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약물중독 치료의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조사기관 에스앤에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글로벌 마약중독 치료제 시장의 경우 2023년 기준 약 37억 달러(한화 약 5조원)에 달하는 규모를 갖추고 오는 2032년까지 연평균 10.4%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는 “마약중독 치료용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상업성이 검증된 제품이지만, 높은 기술적 진입장벽으로 인해 후속 개발이 쉽지 않은 분야”라며 “인벤티지랩은 미세유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존 제품의 한계인 제품력과 경제성을 개선한 개량신약을 글로벌 임상 단계까지 개발한 만큼, 이번 글로벌 팁스를 통해 글로벌 후기 임상과 사업화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새로, 리뉴얼·마케팅으로 성장세 지속

롯데칠성음료 제조 슈거 소주
과즙 라인업 확장, 전년비 27% 성장

롯데칠성음료의 제조 슈거 소주 '새로'가 출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대한민국 대표 소주로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9월 첫선을 보인 '새로'는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조 슈거 소주로, 증류식 소주를 첨가하고 영양성분 표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5000만 병, 7개월 만에 1억 병을 돌파했으며, 2025년 말 기준 누적 판매량 8억 병을 기록했다. 또한 '새로 살구', '새로 다래', '새로 오미자' 등 과즙 라인업을 확장하며 2025년 말 전년 대비 약 27% 성장했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새로'는 올해 1월 말, 출시 후 첫 번째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하며 한 차원 더 진화했다. 제조 슈거 소주라는 본질적 콘셉트는 유지하면서도, 기존 보리쌀증류주를 100% 국산 쌀 증류주로 전면 교체해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을 극대화했다. 이와 함께 경쟁 브랜드와의 확실한 차별화를 위해 아미노산 5종(BCAA 및 알라닌, 아르기닌)을 새롭게 첨가해 소주 맛의 완성도와 밸런스를 높였다. 패키지 디자인 역시 병뚜껑 엠블럼에 고유인민트색을 더하고, 라벨 속 구미호의 모습을 가볍게 뒤는 역동적이고 신묘한 자세로 변경해 가독성과 시각적 매력을 동시에 잡았다.



새로 플레이버 3종.

/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는 리뉴얼 출시에 맞춰 3월 성수동에서 방탈출 콘셉트의 팝업스토어 '새로중앙박물관'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앞서 운영한 '새로도원' 팝업스토어와 '새로도원 구슬 식기'는 '2026 iF 디자인 어워드'와 '2026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수상했다. '새로 살구'와 '새로 다래' 패키지 역시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했다.

구미호 캐릭터 '새로구미'를 활용한 마케팅도 이어졌다. '대한민국광고대상' 3관왕 및 '스파익스 아시아 2025' 동상을 수상하는 등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인정받았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국내 소주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새로'가 제조 슈거 소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주의 대표 주자로 자리잡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SK바이오팜, 2분기 영업이익 971억... 57% ↑

(전년비)

일회성 호재 착시 견어낸 성과 평가
美서 엑스코프리 매출 성장세 영향
안정적 이익창출, 후속 연구 속도

국산 신약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사진)'의 미국 매출 폭발을 바탕으로 SK바이오팜이 글로벌 성장 보폭을 크게 넓혔다. 엑스코프리는 독자 상업화 모델을 확보한 모습이다.

SK바이오팜은 2026년 2분기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은 2474억원, 영업이익은 971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0.3%, 영업이익은 56.9% 늘었다. 전분기 대비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8.5%, 8.1% 증가하며 일회성 용역수익이 반영된 분기를 제외하고 역대 최고 분기 실적 흐름을 이어갔다.

SK바이오팜은 제약·바이오 업계 특유의 일회성 호재 착시를 견어내고 거둔 성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전분기 유입됐던



마일스톤 매출이 소멸하며 기타 매출이 감소하고 광고 및 R&D 투자로 판매관리비가 증가한 상황에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분기 대비 73억원 커졌다.

이러한 호실적은 엑스코프리 성장세가 뒷받침됐다. 매년 연매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추가로 늘어나는 매출 순증가액으로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연간 미국 매출은 출시 첫해인 2020년 1020만 달러에서 2021년 6840만 달러(+5810만 달러, 이하 전년 대비), 2022년 1억 3090만 달러(+6260만 달러), 2023년 2억 7400만 달러(+7650만 달러) 수준이다.

최근 3개 연도에는 연간 순증가액폭을 1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2024년 3억 2160만 달러(+1억 1420만 달러), 2025년 4억 4320만 달러(+1억 2160만 달러)를

경신했다.

이 흐름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2분기 엑스코프리의 미국 매출은 224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5%, 전년 동기 대비 45.6% 급증했다. 상반기 누적 미국 매출만 4221억원에 달한다. 처방 지표 역시 2분기 미국 내 총 처방 수(TRx)가 약 14만 3000건으로 전분기 대비 8.4% 늘었고, 6월 월간 처방 수는 4만 9155건으로 역대 최대치다.

SK바이오팜은 엑스코프리를 통해 창출한 안정적인 이익과 현금 흐름으로 후속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중추신경계(CNS) 저분자 신약, 방사성의약품 치료제(RPT), 표적단백질분해(TPD)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엑스코프리의 경우에는 제형 확대(현탁액 NDA 제출 완료) 및 적응증 확대(소아 및 PGTC 연내 sNDA 제출 예정)를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영토 확장에 속도도를 낼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현대백, 역대 최대 매출 6438억 기록

(2분기)

외국인 고객 매출 큰 폭 늘어

현대백화점이 명품과 패션을 중심으로 한 판매 증가와 외국인 고객 유입 확대에 힘입어 올해 2분기 백화점 부문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면세점은 흑자를 이어갔지만, 지누스의 부진으로 연결 기준 실적은 소폭 감소했다.

5일 현대백화점은 공시를 통해 백화점 부문의 2분기 순매출이 6438억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고 밝혔다.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영업이익은 1101억원으로 58.6% 늘었다.

상반기 순매출은 1조 276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3% 증가하며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460억원으로 47.7% 증가했다.

실적 개선은 명품·위치·주얼리·패션·리빙 등 주요 상품군의 판매 호조와 외국인 고객 증가가 이끌었다. 방한 관광객 증가

와 K콘텐츠 확산에 따라 해외 명품뿐 아니라 국내 패션·뷰티 브랜드에 대한 외국인 소비도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상반기 주요 점포의 외국인 매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 더현대 서울은 전년 동기 대비 134%, 무역센터점은 131% 증가했으며, 두 점포 모두 외국인 매출 비중이 약 20% 수준까지 높아졌다. 더현대 서울은 중국·일본·미국 관광객 중심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카자흐스탄 등으로 방문객 국적이 다양해지며 현재 180여 개국 관광객이 찾는 쇼핑 명소로 자리 잡았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백, AI 활용 외국인 관광객 마케팅 강화

생성형 AI 검색 최적화 마케팅 추진

롯데백화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마케팅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여행 정보 탐색 방식이 포털 검색에서 생성형 AI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여행 준비부터 방문, 쇼핑까지 전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여행시장 조사기관 포커스라이트(Phocuswright)가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여행객의 56%는 여행 계획을 세울 때 한 차례 이상 생성형 AI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Z세대에서는 그 비율이 72%에 달했다.

롯데백화점은 여행 준비 단계에서 생

성형 AI가 롯데백화점 관련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GEO(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생성형 AI 검색 최적화)' 마케팅을 추진한다. 생성형 AI가 여행이나 쇼핑을 추천할 때 롯데백화점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제시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AI 친화적으로 최적화하는 작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롯데벤처스가 운영하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유니콘밸리'를 통해 올해 신설된 '디테일 AI 솔루션 T/F팀'과 협업해 진행한다. 이 팀은 브랜드 정보를 AI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체 솔루션 '골든노트 인덱스(GoldenNote Index)'를 개발했다.

/김서현 기자

노브랜드 버거, 다점포 가맹점주 확대

전체 매장 중 1곳, 동일 점주 운영

신세계푸드의 버거 프랜차이즈 노브랜드 버거에서 2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다점포 가맹점주가 꾸준히 늘고 있다.

5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2개 이상 노브랜드 버거 매장을 운영하는 다점포 가맹점주 소속 매장은 총 42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보다 133% 증가한 수치다. 전체 매장 가운데 다점포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9%에서 15%로 확대됐다. 현재는 전체 매장 7곳 중 1곳을 동일 가맹점주가 운영하고 있다.

다점포 가맹점주의 평균 운영 매장 수는 2.6개다.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한 가맹점주는 9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기존 가맹점주가 추가 운영 중인 노브랜드 버거 이마트 해운대점.

/신세계푸드

신세계푸드는 기존 가맹점주들이 실제 매장 운영을 통해 수익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인한 뒤 추가 출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5월 도입한 소자본 창업 모델인 '콤팩트 매장'이 다점포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신원선 기자

“폭염 속 에어컨 관리법… 필터 청소·벽면 콘센트 직결”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관리법 안내
2~3주 주기 세척으로 냉방 효율 유지
실외기 환기창 열고 주변 물건 치워야

삼성전자서비스가 여름철 에어컨 고장과 성능 저하를 막는 방법으로 2~3주 주기 필터 세척과 벽면 콘센트 직결 등 네 가지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5일 삼성전자서비스는 청소와 정리, 확인, 인공지능(AI) 진단의 앞 글자를 딴 ‘청·정·확·인’ 관리법을 안내했다. 폭염과 열대야로 에어컨 사용량과 서비스 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관리의 첫걸음은 주기적인 필터 청소다. 냉방 성능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려면 필터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먼지거름필터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공기 순환이 방해받는 탓이다. 필터는 2~3주마다 흐르는 물로 세척한 뒤 그늘에서 말려 사용하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가 에어컨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모습. /삼성전자서비스

야 한다. 삼성전자 에어컨의 경우 사용 시간에 맞춰 필터 청소 알림과 음성 안내를 제공해 관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

실내기와 실외기 주변 정리도 필요하다. 실외기실 환기창을 열어두고 공기 순환을 막는 물건을 치워야 냉방 과정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외부로 빠져나간

다. 실외기 과부하를 예방하는 기본 조치다. 반대로 실내기 주변에 방향제나 디퓨저를 두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다. 공기 중 성분이 필터나 내부 열교환기의 습기와 반응해 냄새를 유발할 수 있어서다.

전원 연결 상태 확인도 빼놓을 수 없다. 에어컨 전원 코드가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 정격 전원

보다 용량이 낮은 멀티탭에 다른 기기와 함께 연결하면 과부하로 차단기가 내려갈 수 있다. 화재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I를 활용한 자가 점검도 방법이다. 삼성전자의 AI 홈 솔루션 스마트싱스를 통해 ‘에어컨 인공지능 진단’을 받아볼 수 있다. AI가 냉매량과 모터·센서 상태, 실외기 정상 작동 여부를 분석한 뒤 조치 방법까지 안내한다. 서비스 접수 전 문제 원인을 가늠할 수 있는 셈이다.

운전 방식을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폭염으로 실내 온도가 높을 때는 ‘강력 냉방’으로 온도를 빠르게 낮춘 뒤 무풍 운전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도 함께 높일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유망 식품 스타트업 발굴

CJ제일제당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프론티어랩스(FRONTIER LABS)’ 6기 참여 스타트업 4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프론티어랩스는 CJ제일제당과 협업 가능한 식품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1년 출범 이후 5년간 총 19개 스타트업과 협업을 진행했다. 올해 6기 모집에는 약 260개 스타트업이 지원해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CJ제일제당



한국벤처투자, 홍보대사에 걸그룹 리센느

한국벤처투자가 걸그룹 리센느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더뮤즈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더뮤즈엔터테인먼트가 K-콘텐츠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것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더뮤즈엔터테인먼트 소속 5인조 걸그룹 리센느는 최근 국내 주요 음원차트 1위에 오르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벤처투자



IPARK현대산업개발, 폭염 대응 캠페인

IPARK현대산업개발이 폭염에 대비해 건설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일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현장에서 ‘IPARK 고드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양승철 최고안전책임자(CSO)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은 옥외 근로자들에게 콜패치, 이온음료, 식염포도당 등을 전달하고 휴식과 수분 섭취 여부를 점검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소진공, 7개 기관과 청렴 실천 공동 결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대전지역 7개 공공기관이 청렴·윤리 경영 실천에 나섰다. 5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4일 대전 전통나래관에서 지역 7개 공공기관이 ‘2026년 청렴·윤리 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 라이브’를 개최하고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공동 의지를 다졌다. /소진공

SK이노베이션, 가족돌봄아동 진로 탐색 지원

34명 참여… 기업 탐방·직무 특강

SK이노베이션이 가족돌봄아동의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아동복지 전문 기관 초록우산과 함께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진로 탐색 캠프 ‘낙낙(Knock樂) 투어’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가족돌봄아동은 질병이나 장애, 정신 건강 문제 등을 겪는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생계와 학업, 진로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복지 제도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SK이노베이션은 2024년부터 3년째 가족돌봄아동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낙낙투어에서 진행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에 후원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해 마련한 1%행복나눔기금으로 교육비와 돌봄비를 지원하고 진로 개발과 심리치료,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상미당홀딩스, 쪽방촌에 건강꾸러미 전달

임직원 제작 200세트 등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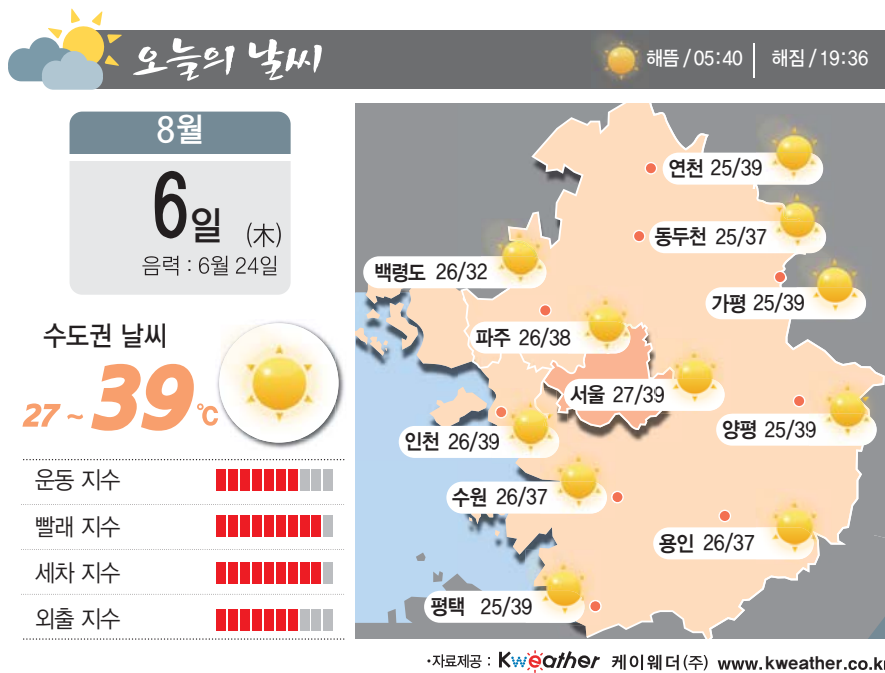
상미당홀딩스가 폭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에게 건강꾸러미와 생수를 전달했다. 상미당홀딩스는 전달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당소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건강꾸러미 200개와 생수 2000개를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건강꾸러미는 삼계탕, 약과, 스프, 견

과류, 스포츠 클타올 등으로 구성됐으며, 계열사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했다. 기부 물품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기창고’를 통해 서울역 쪽방촌 등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온기창고는 쪽방촌 주민들이 배정받은 적립금을 활용해 필요한 생필품을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원 시설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호암재단, 삼성호암상 상금 5억으로 증액

2027년 제37회 시상부터 적용

6개 부문 총 30억 규모로 운영

호암재단이 삼성호암상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을 내년부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삼성호암상의 위상을 높이고 학술·예술·사회봉사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호암재단은 삼성호암상 상금을 부문별 5억원으로 증액한다고 5일 밝혔다. 과학·공학·의학·예술·사회봉사 등 6개 부문의 총상금은 18억원에서 30억원으로 66.7% 늘어난다.

증액된 상금은 삼성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생의 서거 40주기인 2027년에 열

리는 제37회 시상부터 적용한다.

삼성호암상 수상자 가운데 일부는 수상 이후 노벨상과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 재단은 상금 증액을 통해 한국계 과학기술 연구자의 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순수예술과 사회봉사 분야에 대한 관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식 호암재단 이사장은 “상금 증액을 계기로 세계적 성취를 이루며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는 우수한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추천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내외에서 연구와 창작 활동에 매진하고 봉사 정신을 실천하는 인재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알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성호 기자 ysw@

홍보 서포터즈 ‘플러스 크루’ 4기 모집

중견련, 대학생·취준생 5명·팀 선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홍보 서포터즈 ‘중견기업(UP) 플러스 크루’ 4기를 모집한다.

5일 중견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출범한 ‘중견기업(UP) 플러스 크루’는 중견기업 성장(UP)에 힘을 더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18명의 크루가 126개의 쇼츠를 제작했다. 영상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대학생 또는 대학 졸업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과 중견련에 대한 관심도,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역량, SNS

이해도 및 활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5명 또는 팀(3인 이하)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한 ‘크루’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MZ 세대 시각에서 중견기업과 중견련을 알리는 참신한 홍보 쇼츠를 제작하고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등 중견련 주요 행사에 일일 취재 기자로 참여한다.

‘크루’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우수 크루에게는 특별 격려금도 전달한다. 중견련 회장 명의의 위촉장과 수료증도 수여한다. 중견련 입사 시 서류 전형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아모레퍼시픽,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설화수·롱테이크 패키징 경쟁력 인정

아모레퍼시픽이 독창적인 디자인과 자연 친화적 패키징을 앞세워 글로벌 디자인 무대에서 존재감을 입증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진설 인퓨전 트리트먼트’와 ‘롱테이크 오 드 파퓸’이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설화수 진설 인퓨전 트리트먼트는 제

품 디자인 부문 패키징 분야 본상을 수상했다.

해당 제품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의 스킨케어다. 피부 상태에 따라 리필을 교체하는 방식을 적용해 제품 본연의 기능을 직관적으로 구현했다. 용기 상단을 90도 돌리면 펌프가 올라온다. 또 용기 측면에는 슬릿 윈도우를 뚫어 내용물 잔량을 확인할 수 있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인사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통상협정무역규범과장 홍기웅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 신영락(8월6일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 문승록

부음 ▲김영희씨 별세, 최지강(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선수)씨 모친상 = 4일, 광주남문장례식장 401호(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499번길 26-15), 발인 6일. 062-675-5000 ▲이수만(전 울산시의회 부의장)씨 별세 = 4일, 울산시 영락원장례식장 203호, 발인 7일. 052-272-1111

입시결과로 보는 2027 수시 전략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 전년도 입시 결과 활용의 한계와 보수적 관점의 필요성

대입 수시 모집에서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표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의 대학별 입시 결과다. 2026학년도 수시 결과에 따르면 인서울 주요 44개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및 종합전형 합격자 70% 컷 성적은 정원 조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전년도 등급 수치만을 절대적 기준 삼아 지원하는 방식은 불합격 위험을 높인다. 입결은 제도적 변수와 수험생 지원 심리에 따라 변동하는 가변적 지표이기 때문이다. 2027학년도 수시 입시는 합격선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거나 매우 촘촘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수적인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

◆ 2026학년도 입시 지형을 흔든 3대 거시적 핵심 변수

2026 입시 지형을 흔든 가장 큰 거시적 변수는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변화였다. 최상위권 의대 정원 확대는 메디컬 라인의 합격선 이동을 일으켰으나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 교과전형에서

는 재학생들의 수시 몰림 현상으로 이어져 합격선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이중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전공자율 선택제(무전공)로 대규모 선발함에 따라 기존 주요 학과들의 모집정원이 대폭 감축됐다. 정원이 축소된 학과들은 합격선이 전년 대비 일제히 상승하는 압박을 받았다. 아울러 자연계열 수능 최저 지정 영역 폐지로 인한 시탐런 현상은 최저 충족 비율을 이끌어 올려 주요 대학 교과전형의 합격선을 밀어 올렸다.

◆ 합격선 요동을 결정짓는 미시적 구조 변수와 N수생 영향

개별 모집단위의 미시적 구조 변수 역시 합격선 변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소형 학과의 정원 1~2명 감축은 커트라인 폭등으로 이어졌으며, 전년도 합격선이 이례적으로 낮았던 학과로 지원자가 대거 몰리는 역풍 현상은 당해 연도 입결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했다. 충원율 또한 중요한 변수이다. 경영, 전자공학 등 중목 합격이 많은 학과는 충원율이 높아 합격선 범위가 넓어지는 반면, 충원율이 낮은 학과는 아주 작은 점수 차이로도 합격 여부가 갈렸다. 여기에 정시 모집에서 N수생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고3 재학생들이 수시 모집에서 안정 지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욱 짙어졌고, 이는 인서울 합격선을 밀

바닥부터 밀어 올린 원동력이 됐다.

◆ '어디가' 입결 데이터의 다각적 해석과 착시 제거

공개된 '어디가' 입결 데이터를 해석할 때에는 전형별 특성에 맞춘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표면적 등급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학별 환산점수식과 진로선택과목 성취도 반영 방식에 따른 내신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동일 등급이라도 대학별 환산 방식에 따라 실제 점수 우열이 바뀌기 때문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70% 컷 수치는 착시 현상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

◆ 2027학년도 수시 승리를 위한 위험 분산 원서 작성법

2027 수시 대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위험 분산 원칙에 따라 수시 6회 지원 카드를 배분해야 한다. 수시 카드는 수능 최저가 높거나 서류 경쟁력이 명확한 모집단위 위주의 상향-소신 카드 1,2장, 최근 3개년 입결 범위 내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며 모집인원 변동이 적은 적정 카드 2~3장, 수능 최저 미충족 시에도 합격이 보장되는 전형 및 충원율이 높은 대형 모집단 위주의 안정 카드 1~2장으로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입 결과는 다각도의 변수가 만들어낸 복합적 산물인 만큼 변수를 교차 검증해 보수적인 원서 조합을 완성해야 한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환율 착시가 가린 백화점 '사상 최대'의 경고



김 서 현
(유통&라이프부)

국내 주요 백화점 3사가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외국인 매출을 올려 연간 외국인 매출 '1조 원 고지'를 눈앞에 뒀다. 내수 소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외국인 매출은 가뭄 속 단비이자 실적 방어에 일등 공신이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명확한 한계와 경고 신호가 읽힌다. 지금의 폭발적인 외국인 매출 성장이 과연 백화점 고유의 본질적 경쟁력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외부적 환경 변수에 기댄 '환율 착시' 인가라는 질문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 1달러당 1527원까지 치솟았고, 이달 5일 기준 1450원 선을 오가며 급박한 원화약세 흐름을 이어가

고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명품과 K-패션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쇼핑 환경이 마련됐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국가별 가격 차이를 제한하는 정책을 쓰는 와중에, 환율이 급등하자 달러 기반의 면세점은 가격 경쟁력을 잃었고 그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백화점으로 쏠렸다.

결국 지금의 외국인 매출 급증은 국내 백화점 공간이 지닌 매혹이라기보다, 고환율이라는 일시적 경제 조건이 만들어낸 '가격 착시'의 성격이 짙다. 환율 흐름이 급변하거나 글로벌 경기 변동으로 환율 메리트가 사라지는 순간, 이 모래성 같은 매출 역시 한순간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고환율 호재에 기댄 실적 잔치에 삼매인을 터뜨릴 수만은 없는 이유다.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가격 해택'을 찾아왔다가 환율 따라 떠

나는 쇼핑객이 아니라, 공간과 브랜드 자체에 매료되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팬덤이다. 환율이라는 외부 변수가 사라져도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이 공간을 찾을 명분을 만들어내야 한다.

결국 답은 '공간의 혁신'과 '차별화된 경험의 제공'에 있다. 단순한 브랜드 매장의 나열과 결제 편의성 향상 수준을 넘어, 오직 한국의 백화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단독 콘텐츠와 K-컬처 체험, 미식과 예술이 조화된 랜드마크 공간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정의해야 한다.

환율이 안겨준 뜻밖의 호재는 백화점 업계에 혁신의 골든타임을 벌여준 것일 뿐이다. 착시가 걷혔을 때 드러날 진짜 실력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사상 최대 매출'은 내일의 가장 큰 경고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seoh@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6일 (음 6월 2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60년생 여행을 각별히 조심하세요. 72년생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하였습니다. 84년생 운전할 때 과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49년생 배우자의 건강에 신경을 쓰세요. 61년생 오늘은 특히 입조심하세요. 73년생 큰 돈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85년생 정주지 마세요.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질 연인입니다.

50년생 곧 나아지니 무리하지 말고 휴식하세요. 62년생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74년생 너무 많은 조심성은 해가 됩니다. 86년생 오랜 친구에게 뜻밖의 배신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1년생 가끔씩의 휴식은 약이됩니다. 63년생 돈 때문에 망신수 있으니 근신하세요. 75년생 자신의 재능이 부족한 탓을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87년생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52년생 큰 뜻을 펼치겠습니다. 64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76년생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쫓으니 그 결과가 가히 창대 할것입니다. 88년생 이상형의 직종을 만날 수 있습니다.

53년생 안좋은 관계의 사람과 빠른 시간에 화해하도록 하세요. 65년생 노력한 만큼 얻을것입니다. 77년생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89년생 성실한 삶의 자세가 빛을 보는 때입니다.

54년생 귀인의 도움이 있습니다. 66년생 잃어버린 물건이 서북 방에 떨어져 있습니다. 78년생 남쪽이 길방입니다. 90년생 불의의 사고가 우려되니 경망된 행동은 삼가해야겠습니다.

55년생 집안에 불길한 기운이 감돕니다. 67년생 모든일이 어수선하고 불길합니다. 79년생 벌리고 있는 업종이 불황을 만날수 있습니다. 91년생 외출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6년생 자분이 감소합니다. 68년생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분위기입니다. 80년생 능력있는 윗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2년생 어렵거나 잘 안 풀려도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57년생 맘을 흘리면 매우 좋습니다. 69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81년생 시비를 가 끼이지 마세요. 93년생 까치가 아침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니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고 성취될 것입니다.

58년생 구설수가 따를 것이니 사람과의 교제를 잘하세요. 70년생 이익이 같이 들어오니 도처에서 불바람이 불니다. 82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94년생 정신적으로 중힘이 들더라도 밀고 나가세요.

59년생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71년생 원하던 소원을 풀 수 있겠습니다. 83년생 서쪽에 있는 사람만 가까이하지 마세요. 95년생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방합니다.



김상회의四季 천지 지혜

지혜로운 여성의 대명사는 누구일까? 서양의 역사에 경도된 세계사에서 사실 가장 많이 회자하는 여성은 어찌 보면 제국주의 이후 근대 세계사를 이끌어온 유럽이나 미국이 아닌 아슬라 사막 지역의 여성 세헤라자드이다. 지혜라 하면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세헤라자드, 그 유명한 아라비안나이트의 주인공 아날라. 필자는 지금 역사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통사회에서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환경 속에서도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지혜 가득한 여성들을 볼 때마다 같은 여자로서 어떤 가능성과 희망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많은 지혜 총명한 여성들이 있지만, 필자는 항상 섣덕여왕이 우선으로 떠오른다. 게다가 그녀는 왕의 여인도 아닌 여왕이었다.

한반도 역사상 최초 여왕이기도 했으며 그녀의 총명함과 지혜로움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모란고사' (牡丹古事)를 비롯한 여러 예에서 알 수 있다. 당시 당나라 태종은 사신을 통해 신라에 모란꽃 그림과 모란 씨앗 석 되를 보내왔는데, 이때는 아직 섣덕여왕이 되기 전 진평왕의 딸로서 공주신분이었다. 이때 공주였던 덕만은 이 꽃에는 향기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림에 모란은 꽃은 탐스럽고 아름다웠으나 별과 나비가 보이지 않으니 분명 향기가 없을 것이다. 덕만공주의 말처럼 보내온 씨앗을 뿌려 꽃이 피기를 기다리니, 역시 꽃은 탐스럽고 화려했으나 꽃과 나비는 피어들지 않았으니 그림을 보고 통찰한 그녀의 지혜가 만천하에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지혜 담긴 통찰이 어디 이 하나에 국한했으리. 당시 신라는 삼국 중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신라 귀족 중에서는 여성 왕의 출현을 그리 달가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6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7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 스도쿠

15.3판권

결합형 스도쿠10

10.3판권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3	9		6				8
		4	7		5		
5						6	
		2		8	3		4
8			1	6		5	
		9					5
			4		9	8	
4				2		9	7

2		6	3		1	8		9
			4					6
7								
8		4	1					
	7						6	
						4	5	3
1						2		
5		3	6		8	2		4



고용노동부 장관
“메가특구 노동규제
완화여부 미정”
L1



Life

서울 데이터센터
AI·재난 대응에
200억 투입
L2



기술로 뚫고, 접근성으로 다져... 소비자 손끝 사로잡았다



릴 에이블 3.0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KT&G ‘릴’

국내 궤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독보적인 기술력과 탄탄한 소비자 접점을 무기로 시장의 판도를 주도하는 브랜드가 있다. 바로 KT&G의 궤련형 전자담배 ‘릴(lil)’이다.

2022년 1분기 이후 줄곧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는 릴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철저한 R&D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옴니채널 생태계를 구축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로 도약하고 있다.

릴의 압도적인 성과 뒤에는 철저하고 과감한 R&D 투자가 자리 잡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스틱 시장 점유율 47.4%를 기록 중인 KT&G는 차세대 제품(NGP) 관련 특허를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에만 무려 5302건이나 출원했다.

독보적 기술력으로 전자담배 시장 ‘1위’
소비자 취향 저격하는 ‘3대 라인업’ 완성
예열·충전시간 줄이고 성능·기호성 높여
우아한 곡선 디자인에 안정적 그립감까지

이러한 기술적 토대 위에서 KT&G는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과 니즈를 저격하는 ‘3대 플랫폼 라인업’을 완성했다.

직접 가열 방식의 ‘릴 솔리드’, 액상 카트리지를 결합해 풍부한 흡연감을 제공하는 ‘릴 하이브리드’, 하나의 기기로 다양한 전용 스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릴 에이블’이다.

이들 3개 플랫폼은 모두 3.0 버전까지 고도화됐다.

특히 최근 선보인 ‘릴 에이블 3.0’은 예열 및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고급스러운 메탈 소재를 적용하여 성능과 디자인적 완성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이전 모델 대비 예열시간은 약 10초 단축했으며, 완전 충전까지 걸리는 시간도 절반으로 대폭 줄였다. ‘사용 중 일시정지’와 ‘기호에 따른 사용 모드 전환’, ‘3회 연속 사용’ 등 기존 소비자 호응이 좋았던 기능은 그대로 유지했다.

KT&G는 유럽 디자인 스튜디오와 글로벌 협업을 통해 ‘릴 에이블 3.0’에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정교하게 가공한 메탈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UX(사용자 경험)에서는 공기의 흐름에서 영감을 받아 우아한 곡선미와 정서적 안정감을 극대화한 그립감을 강조했다. UI(사용자 편의성)측면에서도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요소는 덜고, 꼭 필요한 경험은 더하는 OLED 디스플레이를 구현해 KT&G ‘릴’이 추구해 온 ‘미니멀리즘(Minimalism)’의 브랜드 철학을 담았다.



KT&G 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고객이 상담받고 있다.



릴 하이브리드 3.0 카고컨테이너 에디션.

/KT&G

기술력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은 대외적으로도 공인받았다. KT&G는 NGP 사업의 체계적인 지식재산권(IP)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글로벌 IP 솔루션 기업 ‘벡시스넥시스’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제품이라도 소비자가 겪는 이용 장벽이 높다면 시장에서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

KT&G는 오프라인의 한계를 온라인으로 매우고,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문 ‘옴니채널(Omni-channel)’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고객 경험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촘촘한 밀착형 거점이 빛을 발한다. 플래그십 스토어인 ‘릴 미니멀리즘’ 5개소를 비롯해 전국 광역시 20여 개 거점 서비스센터, 그리고 릴스테이션으로 지정된 1079개의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A/S를 셀프로 접수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다.

온오프라인 경계 허문 ‘옴니채널’ 서비스
전국 거점망, A/S 인프라로 접근성 확보
온라인 자가진단 도입... 24시간 조치 가능
궤련형 전자담배 경쟁 심화 속 경쟁력 강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가 전격 도입되면서 서비스의 축이 비대면 영역으로까지 확장됐다. 릴 공식 홈페이지에 신설된 자가진단 서비스는 기기 작동법 안내, 단순 문의, 센터 위치 확인 등 소비자들이 자주 겪는 상황을 카테고리별로 세밀하게 분류해 맞춤형 텍스트와 이미지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도 24시간 자가 조치가 가능해졌으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가까운 오프라인 센터 안내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하이브리드 고객 접점’이 최종 완성됐다.

국내 궤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G ‘릴’이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할 수 있는 비결은 명확하다. 기술적 우위에 안주하지 않고, 철저히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 사용성과 서비스 환경을 개선해왔기 때문이다.

KT&G 관계자는 “국내 궤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릴이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 사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시장 경쟁력을 높여왔다”며,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거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고객친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술로 시장의 장벽을 뚫고, 차별화된 접근성과 친화적 서비스로 고객의 마음을 굳히고 있는 KT&G ‘릴’. 대한민국 궤련형 전자담배의 표준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펼쳐갈 이들의 다음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metr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5~6일 프로야구 전 경기 전격 취소 /사진 뉴시스
▲‘임시 감독 체제’ 한국 축구, 9월 에콰도르·우루과이와 A매치

▲김민솔 vs 서교림, 동갑내기 경쟁...KLPGA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6일 개막
▲MBC, ‘대학가요제-나의 드라마’ 참가자 모집...16일 마감

▲폭염에 경북궁 수문장도 쉰다...교대의식 전면 취소
▲수요일 밤마실은 동네서점으로...전국 70곳 ‘심야책방’ 열린다

SAMSUNG

The all-new Galaxy Z Fold8 Ultra | Fold8 | Flip8 Galaxy AI ✨

2026년 8월 7일 출시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좌측부터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갤럭시 Z 폴드8, 갤럭시 Z 플립8입니다. 특정 시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삼성계정 로그인에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을 참고하세요.